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Inside this Issue

2005년 개관

최근소식.....1

-아시아의 수출통제시스템: 불균등한 진전을 보인 2005년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 지역의 법적 진전(development)
 -일본, 수출 통제는 강화했으나 무기 규제는 완화해
 -방위산업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통제 변화해
 -중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국가들의 2005년 주요수출통제 발전현황
 -키르기스스탄과 우크라이나 평화적 혁명에 따른 수출통제의 변화
 -러시아, 지속적으로 수출통제시스템 개선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방사능원 재고조사 실시하고 통제 강화
 -국경통제의 강화
 -기타 소식

불법밀매.....33

-불법 공급망에 노출된 유럽 수출통제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유럽 수출통제의 약점을 드러낸 수출통제 위반사건들
 -파키스탄, 피해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쇄신 힘들어
 -수출통제체제를 시험하기 위한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2005년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내에서 발생한 방사능, 핵, 이중용도 물자 관련사건 요약
 표 1: 2005년 NIS 내에서 일어난 방사능물질 발각, 이중용도 물자의 불법 밀매, 핵물질 관련사건 요약
 -중국 기업에 이중용도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러시아 스페이스 사 대표 체포돼
 표 2: 적발된 러시아 과학자 목록

국제지원프로그램.....58
 2005년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지원

국제공급국체제.....61
 -2005년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관
 호주그룹 (AG)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바세나르 협약 (WA)
 핵공급국그룹 (NSG)

금수 및 제재조치.....68
 -미국, 이란 비확산법 (INA) 개정
 -6자 회담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북한기업에 제재조치 내려

국제소식.....75
 -2005년 해상 항만보안
 -러시아의 감독 하에 핵 반응기 건립하는 미얀마

워크샵과 컨퍼런스.....81
 -미국과 베트남, 수출통제에 대한 APEC 회담의 공동후원 맡아
 -한국 산업자원부 (MOCIE), 국제 수출통제 워크샵 개최해
 -남부 카자흐스탄서 내부이행프로그램 (ICP) 워크샵 열려

최근소식

아시아의 수출통제시스템: 불균등한 진전 (uneven progress)

2005년 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국내 수출통제와 비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층 높아진 인식을 보였다. 몇몇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 (WMD)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에 대한 보다 강력한 수출통제를 위해 관련법규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나, 많은 국가들은 수출통제의 실행에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남아시아와 남동아시아 지역은 수출통제의 발전이 대체로 더딘 편이지만, 이 지역의 일부 국가들은 몇몇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의 3대 경제 강국인 중국, 일본, 한국은 지난 한 해 동안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움직임 (mixed result)을 보였다. 일본과 한국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과 물질에 관한 자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특정 무기 수출에 관한 수출통제는 조심스럽게 완화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우 더욱 혼란스러웠다. 이 기사는 아시아 지역의 2005년 수출통제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법적 진전

2005년 인도에서 일어난 큰 사건 중 하나는 6월 6일에 대량살상무기법 (WMD Act) 이라고도 불리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체계 (불법행위 방지법)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Delivery Systems—Prevention of Unlawful Activities) 가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이 법은 이전 규정의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수출통제 법규의 위반에 대해 200만 루피 (약 43,000달러) 이상의 벌금과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¹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인도 대표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법 (WMD Act)은 수출통제 규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모든 회원국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수출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의 의무를 인도 정부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법은 기존 수출통제 규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통과 물품에 대한 통제도 규정하고 있으며, 무형기술을 포함하여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는 통제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² 대량살상무기법은 모든 비확산

관련법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법은 검증하는 국제 핵 협력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와의 개별 협의에 앞서 인도의 핵 수출통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³

말레이시아는 2005년에 자국의 비확산 약속의 이행에 있어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2005년 5월에 말레이시아 의회는 화학무기의 이전, 소유, 생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부여하는 화학무기금지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Bill)을 통과시켰다. 동 법은 또한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에 협력할 전담 국가기구의 설립도 규정하고 있다.⁴ 이에 더해 2005년 11월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제기구가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강도 높은 핵 사찰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AP])에도 서명하였다.⁵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2004년 3월에 말레이시아 정부 담당자는 추가의정서에 서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본거지를 두고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A. Q. 칸 (Khan)의 핵 밀매 고리에 연루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국내 비확산 법규의 개선을 요구하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었다.⁶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2005년에 비확산 법규를 더욱 강화하고, 민감한 이중용도 물품의 불법 거래에 자국의 항구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적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다. 아울러 2005년 9월에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 (Safeguards Agreement)에 따른 추가의정서 (AP)에 서명하였다.⁷ 그 다음 달에 싱가포르 의회는 위험한 생물 작용제, 비활성 생물 작용제, 독극물 등의 환적, 이전, 운송 등을 규제하는 생물 작용제 독극물 법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Bill [BAT])을 통과시켰다. BAT 하에서, 통제된 생물 작용제와 병원균의 수입이나 싱가포르를 통한 환적은 엄격한 통제를 받게

Policies and Practices,”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document, INFCIRC/647, June 29, 2005.

<<http://www.iaea.org/Publications/Documents/Infircs/2005/infirc647.pdf>>.

3 R. Ramachandran “A Bill and Nuclear Hopes,” Frontline (Indian national news magazine), Vol. 22, June 4-17, 2005, <<http://www.flonnet.com>>.

4 “Malaysia’s Chemical Arms Bill Goes to Upper Hous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5), p. 9,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5 “Malaysia Signs Additional Anti-Nuclear Protocol,” Malaysia General News, November 2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6 “Politically Connected Malaysian Firm Linked to Nuclear Smuggling Network,”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4), pp. 9-1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7 “Singapore Signs Additional Protocol to IAEA Safeguards Agreement,” Channel NewsAsia, September 26,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¹ “Illegal Nuclear Sale Blocked in India; New Delhi Passes New Export Control Legislation,”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5), pp. 2-3,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India Passes Law to Prevent WMD Transfers to Terrorists, Non-State Actor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ly 2005), p. 10,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² Communication from the Resident Representative of India to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regarding India’s Nuclear Export

된다. 해당 물질의 운송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의약부 (Medical Service)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고, 통과 시에는 해당 물질의 관리에 관한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⁸

지역 내 다른 국가들도 국제 비확산 규범과 수출통제 표준을 자국의 법규에 적용하고 있다. 2005년 브루나이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의정서뿐만 아니라 화학무기협약 (CWC) 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마무리하기 시작했다.⁹ 캄보디아는 2005년 7월에 화학무기협약 (CWC) 을 비준하고 12월에는 호주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정부의 화학무기협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¹⁰ 남태평양 섬 국가인 피지의 정부 내각은 2005년 5월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추가의정서 비준을 승인했다. 피지 의회는 화학무기협약의 상대국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하고 2005년 11월까지 국가 이행법규를 정비하기 위해, 2005년 9월에 화학무기협약 법 (Chemical Weapons Convention Act) 을 통과시켰다. 이 법규는 협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을 규정한다.¹¹ 2005년 8월에 베트남은 화학무기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이행 법규의 기틀을 제공하는 법령을 공포했다.¹²

(북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2005년 5월까지 각국의 결론을 유엔 1540 위원회 (UN 1540 Committee) 에 제출했다. 이 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SCR 1540) 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안이 요구하는 사항들과 수출통제의 이행 경과를 적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2004년에 만들어졌다. [편집자 주: 이 국가보고서들의 보다 빠른 검토를 위해서는, *Asia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3월 호, 19-23 페이지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진전에 관한 아시아 국가 정부보고서: 1540 보고서의 검토”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전체 국가의 보고서는 1540 위원회 웹사이트 <<http://disarmament2.un.org/Committee1540/report.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Singapore Parliament Passes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Bil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 2,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9 “Brunei May Sign IAEA Additional Protocol,” Borneo Bulletin, March 30,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0 “Five More States Ratify the CWC,”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9-10,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Australia Co-Hosting Cambodia Workshop on Chemical Arms Convention,” BBC Worldwide Monitoring, December 1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1 “Fiji to Sign Nuclear Safeguard Treaty,” Fiji Times, May 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Fiji Adopts Chemical Weapons Legislation,” BBC Monitoring International Reports, September 2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2 “Vietnam Issues Decree on Banning Chemical Weapons,” Global News Wire, August 19,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us.com>>.

일본, 수출 통제는 강화했으나 무기 규제는 완화해

2005년에 일본 정부는 국내 수출통제 법규를 강화하는데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2005년 4월에 일본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는, 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와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일부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에 사용되는) 마레이징강과 (플루토늄을 포함한 폐 원자로 연료를 옮기는데 사용되는) 이동식 크레인을 포함한 다양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물질을 포함하는 개선된 통제목록 분류체계를 만들었다. 동시에 경제산업성 (METI) 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어 일본 기업으로부터 통제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는 외국기업목록에 14개 기업을 새로이 추가했다. [편집자 주: 일본의 기업목록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65개 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록에 등재된 기업들은 주로 북한(39), 이란(39), 인도(35), 파키스탄(24) 등이다.]¹³

일본 당국은 또한 수출통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고 일본 기업의 내부이행시스템을 개선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2005년 4월에 경제통상산업부는 강력한 내부이행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기업들에게 신속한 수출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포괄적” 수출허가를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편집자 주: 포괄적 허가를 가진 수출자는 단수 허가를 가지고 동일한 최종사용자에게 물품과 기술을 여러 차례 선적할 수 있다. 포괄적 허가는 기간제한이 있으며, 만료 시 갱신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가입국들이 자국의 수출통제 체계를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의 가입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일본 정부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 34페이지의 “2005년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지원” 기사를 참조하시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긍정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2004년 12월에 개정된 일본의 “3대 무기수출원칙”은 궁극적으로 수출통제 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편집자 주: 3대 무기수출원칙은 모든 종류의 군사물품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되고 1976년에 확대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미사일방어시설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미국과의 향후 협력을 목적으로, 기존 법규를 완화하여 미국에 대한 미사일 방어 관련

13 “Japanese METI Strengthens Export Control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5), p. 10,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운송을 허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또한 사안에 따라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물품의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¹⁴ 2005년 7월에 일본 국방부 장관인 요시노리 오노 (Yoshinori Ono) 는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도 미사일방어 관련 장비를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해당 거래는 제한된 범위에서, 미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¹⁵ 일본의 무기 수출과 관련하여 또 다른 언급도 있었다. 예를 들어 2005년 3월에 일본 당국자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해적들과 맞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본이 해군 장비를 이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¹⁶

방위산업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통제 변화해

한국 (Republic of Korea [ROK]) 에게 지난 한 해는 기술적으로 보다 진보되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방위산업 개발에 있어 의미 있는 해였다. 한국의 확대된 방위분야는 방위와 관련된 수입과 수출의 증가를 가져왔다. 전략물자와 기술의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는데 있어 한국 정부의 능력에 우려를 표시해 왔던 미국 정부에게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탐탁치 않은 것이다.

한국 전쟁 (1950-1953) 이후, 한국은 방위 분야에 있어 미국에 상당히 의존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군사력의 성장으로 한국 내에서 한-미 양자 간 방위 협력의 재평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05년 6월에 한국의 방위 담당자는 연례한미방위안보협의회의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의 부위원장 회의 (sub-panel) 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방위물자와 무기 시스템에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U.S. Arms Export Control Act) 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¹⁷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 1,400만 달러 이상 상당의 시스템이나, 5,000만 달러 이상의 복합무기 (combined weapons) 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정부가 백악관 대변인과 상원의 외교위원회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FRC]) 에 이를 신청하게 된다.¹⁸ 이와 대조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회원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미 우방국가로의 수출에 있어서는, 2,500만 달러 이상 상당의 시스템, 1억 달러 이상의 복합무기 수출에 대해서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¹⁹ 더욱이 한국이 미국 정부에 전체 무기 구매액의 1.7%에 상당하는 계약 행정서비스 수수료 (Contract administrative services fee [CAS]) 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NATO 회원국과 여타 우방국들은 1.0% 이하의 수수료만을 지불하고 있다.²⁰

방위 수출에 있어 특별한 지위를 요구하는 한국의 태도는 한국의 수출통제 체계의 효율성에 우려를 품고 있는 미국에게는 선뜻 수락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Observer 지의 이전 호 보도를 살펴보면, 몇몇 한국기업이 이란이나 북한 등의 국가들에 대한 물자의 불법 이전을 도우는 하수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4년과 2005년에 한 한국기업이 통제된 방산물질을 러시아에서 이란으로 운송하는데 있어 중개인 역할을 했다.²¹ 그러나 한국의 현재 수출통제 법규는 통제범위에 중개무역 등을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한국 기업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요구에 대한

18 Pak Py-ng-jin, "Mi mugisuch'ult'ongjaeb.p kaech.ng...woegyobu, migukkwa hy.b'.ijinhaeng" (U.S. Arms Export Control Regulations Reform...MND, U.S. in Discussions), Segye Ilbo, November 8,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Chang Il-hy.n, "'Mugigumaeguk chiwi nop'y.dalla' han'guk, mi'e kongsik yogu...nat'oguk.il.hoju sujunro" (SK Officially Requests U.S.: 'Raise Arms Trading Partner Status' like NATO-member Nations, Japan, Australia), Chos.n Ilbo, November 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U.S. Urged to Amend Weapons Sales Law," Korea Times,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U.S. Arms Export Control Act, Ch. 1, Sec. 3, pp. 374-9, <<http://www.fas.org/asmp/resources/govern/aeca01.pdf>>.

19 Pak Py-ng-jin, "Mi mugisuch'ult'ongjaeb.p kaech.ng...woegyobu, migukkwa hy.b'.ijinhaeng" (U.S. Arms Export Control Regulations Reform...MND, U.S. in Discussions), Segye Ilbo, November 8,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Chang Il-hy.n, "'Mugigumaeguk chiwi nop'y.dalla' han'guk, mi'e kongsik yogu...nat'oguk.il.hoju sujunro" (SK Officially Requests U.S.: 'Raise Arms Trading Partner Status' like NATO-member Nations, Japan, Australia), Chos.n Ilbo, November 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U.S. Urged to Amend Weapons Sales Law," Korea Times,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U.S. Arms Export Control Act, Ch. 1, Sec. 3, pp. 374-9, <<http://www.fas.org/asmp/resources/govern/aeca01.pdf>>.

20 "U.S. Urged to Amend Weapons Sales Law," Korea Times,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Yonhap News Agency, November 7, 2005, in "South Korea Asks U.S.

to Revise 'Unfair' Arms Export Law," BBC Monitoring, November 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1 South Korean Firm's Sale of Nickel Isotopes to Iran Legal: Ministry," Yonhap News Agency, July 2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4 Mark Wuebbels, "Japan Revises the Three Arms Export Principle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December 2004/January 2005), pp. 10-11,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15 Japan Says Interceptor Missiles Can Go to Third Countries," AFP, July 14, 2005; in DefenseNew.com, <<http://defensenews.com>>.

16 Tsuyoshi Nojima, "Japan to Offer Patrol Ships to Curb Piracy," Asahi Shimbun, March 1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17 Pak Py-ng-jin, "Mi mugisuch'ult'ongjaeb.p kaech.ng...woegyobu, migukkwa hy.b'.ijinhaeng" (U.S. Arms Export Control Regulations Reform...MND, U.S. in Discussions), Segye Ilbo, November 8,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Chang Il-hy.n, "'Mugigumaeguk chiwi nop'y.dalla' han'guk, mi'e kongsik yogu...nat'oguk.il.hoju sujunro" (SK Officially Requests U.S.: 'Raise Arms Trading Partner Status' like NATO-member Nations, Japan, Australia), Chos.n Ilbo, November 7,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U.S. Urged to Amend Weapons Sales Law," Korea Times,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http://web.lexis-nexis.com/>>.

미국의 유보적 태도에 힘을 실어준다.²²

더욱이 미 당국자들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북한 영토 내 개성산업단지를 통해 통제된 기술의 이전이나 전략물자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데 지속적인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2005년 12월에 시작되었고, 계획에 따르면 2012년쯤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이다.²³ 3단계 계획 중 1단계-3,300만 평방미터의 개성공단지구 완공-는 이미 거의 완수된 상태이다. 2005년, 개성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이 특별산업지구에서 사용될 통신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허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의 우려는 명백해졌다.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 광케이블 전화선 시스템은 미국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에 의해 통제되는 미국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사용될 해당 기술의 수출 승인을 계속 연기하고 있는 상태이다.²⁴

한국의 수출통제시스템과 한국 정부의 기술이전 통제 능력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미 정부가 한국으로의 고고도 무인항공기 (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수출을 거부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미 당국자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의 제한 규정을 인용하면서, 고고도 무인항공기가 대량살상무기의 운송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²⁵ 한국은 다른 방위물자 시장과 파트너를 찾는데 있어 과거에 비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최초의 큰 성과 중 하나는 2001년에 한국 기업인 삼성 테크윈 (Samsung Techwin) 이 터키에 10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발사시스템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이다.²⁶ 더 최근인 2005년 12월에는 한국 국방부가 6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헬리콥터 프로그램 (Korean

Helicopter program) 개발을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의 벨 헬리콥터 (미국 해군의 코브라 헬리콥터 생산기업) 와 함께 하지 않고, 유럽 공동체와 향후 20년간 245대의 헬리콥터를 생산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방위물자 구비에 있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²⁷

게다가, 한국은 2005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물품공급위원회 (NATO Maintenance and Supply Agency [NAMSA]) 의 2단계 공급국 지위 (Tier-2 Level Sponsorship Status) 를 성공적으로 획득했다.²⁸ 한국 정부는 해당 지위를 획득하여 고유의 재고 번호를 부여 받음으로써 방위 수출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군수품 공급자들은 NATO 국가로의 방위 수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⁹

방위 통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출통제에 대한 한국 산업계의 낮은 인식수준과 빈약한 이행 성과는 일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 Observer 지가 보도한 대로, 2005년 10월에 실시한 한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60% 이상이 자사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통제의 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다.³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산업자원부 (MOCIE) 는 2006년 채택을 목표로 2005년 10월 국회에 관련 법규의 개정을 신청했다.³¹ 그러나 예산 문제와 여타의 다른 사안들로 법규 개정은 연기되어, 관련 법규의 정비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³² 현재 한국 정부 역시 2006년 4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유엔 1540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임박한 기한 내에 수출통제시스템의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³³

22 For more on this, see: "South Korean Company Allegedly Assisted Iran in 2004 and 2005 in Acquiring Nuclear Materi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4-5,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l>>.

23 "S. Korean Telecom Seeks U.S. Approval of Tech Shipment for N Korea," Yonhap News Agency, August 1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Seoul to Pick 25 Additional Tenants for Kaesong Industrial Park," Asia Pulse, July 1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4 "S. Korean Telecom Seeks U.S. Approval of Tech Shipment for N Korea," Yonhap News Agency, August 1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Seoul to Pick 25 Additional Tenants for Kaesong Industrial Park," Asia Pulse, July 1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New Phone Service Expected to Boost Inter-Korea Exchanges," Yonhap News Service, December 29,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5 Pak Py-ng-jin, "Miguk muinj.ngch'algi han'gukp'anmae k.bu" (U.S. Denies UAV Sales to South Korea), Segye Ilbo, September 30,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S. Korea Considers Buying U.S. High-flying Pilotless Spy Planes," Yonhap News Agency, July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6 "Samsung Techwin Wins 1 Bln USD Defense Contract from Turkey," AFX News, July 20, 2001;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7 "Eurocopter Wins Contract for S. Korean Copter Procurement Project," Yonhap News Agency, December 1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Jung Sung-ki, "Seoul Steps Out of US-Dominant Weapons Procurement Tradition," Korea Times, December 1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8 "Korea's Logistics Sponsorship to NATO to Be Upgraded," Korea Herald, November 1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9 "NATO Allows S. Korea to Put Country Code on Defense Goods," Yonhap News Agency, November 1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0 "Chollyakmulcha kwalli p'ilyos.ng' n konggam, such'ulh.ga ihaeng' n ch.jo" (Necessity of Strategic Items Controls Agreed but Low Response in Seeking Exports Approvals), October 5, 2005, Han'gungmuy.khy.phoe podojaryo (KITA Press Releas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website, <<http://www.kita.net>>.

31 "S. Korea to Tighten Grip on Strategic Exports," Yonhap News Agency, August 16,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0816000033. Choe Ch.ng-uk, "Ch.llyakmulcha kwalli kanghwa wihae taewoemuy.kp.p kaech.ng ch'ujin" (Foreign Trade Reforms Submitted for Strategic Goods Administration), Kukmin Ilbo, August 16,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32 Cho In-hye, "Ch.llyakmulchagwalli.n' s.lip nanhang" (Creation of 'Strategic Goods Control Committee' Rough Going), ETNews, December 30,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33 Cho In-hye, "Ch.llyakmulchagwalli.n' s.lip nanhang" (Creation of 'Strategic Goods Control Committee' Rough Going), ETNews, December 30,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

민감한 물자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개선 공약은 2005년에 번덕스러운 행보를 계속했다. 중국 정부는 공급국 체제에의 참여를 늘리고 수출통제 관련 사안들에 관한 보다 폭넓은 관심을 담은 비확산 관련 백서를 발간하는 등 수출통제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긍정적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 협력한 혐의로 미 정부로부터 여러 처벌을 받은 중국 기업들 때문에 불거진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통제 이행 여부에 계속적인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중국의 비확산 공약에 대한 미국의 우려로 중국은 2년 연속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의 가입에 실패했다. 더욱이 대만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와 이것이 지역 안보에 끼치고 있는 영향 때문에, 유럽연합(EU)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지속하게 되었다.

중국 수출통제 당국은 2005년에 국내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있어 일부 진전을 보였고,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제 공급국그룹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05년 9월에 발간된 정부 백서 “무기통제와 군축, 그리고 비확산을 위한 중국의 노력”에서 “중국은 철저히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의 목록과 규정에 기초하여 수출통제를 관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효과적인 수출통제는 비확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관심을 기울인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이 향후 협력과 화합을 목적으로 호주그룹(Australia Group [AG]),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 [WA]) 등의 대표자들과 각각 2005년 3월과 6월에 가졌던 개별 협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³⁴

중국은 2004년에 자국의 여러 비확산 공약에 따라 1994 대외무역법(1994 Foreign Trade Law)을 개정했다. 동 개정으로 중국 국내 수출통제 집행의 법적 권위가 높아지고,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과 벌금이 강화되었다. 중국 당국이 2004 대외무역법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수출통제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는 몇몇 조짐이 보였다. 내년에 마무리될 이 신규 법안은 알려진 대로 정부의 모든 수출통제 권한을 “하나의 법적 틀(Umbrella)” 하에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Provisions of Resolution 1540,” WMD 411,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page, <http://www.nti.org/f_wmd411/f2n1.html>. For more on South Korea’s difficulties with export control awareness and compliance, see Dave Kim, “Special Report: South Korean Export Control Awareness on Rise but Compliance Lacking,”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8-9, <<http://www.cns.miss.edu/pubs/observer/Index.html>>.

34 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China’s Endeavors for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September 2005, <<http://www.china.org.cn>>.

놓게 될 것이며, 수출통제 당국에 추가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³⁵

중국이 명백하게 진전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대다수 인사들은 중국의 수출통제시스템 강화 이행 여부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예를 들어, 무기통제와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미 국무차관 존 볼튼(John Bolton)은 2005년 2월에 일본에서 한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행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³⁶ 2005년에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두 건의 처벌 내역을 발표했다. 2004년 12월 23일에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와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2000년 이란 비확산법(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INA])에 따라 7개 중국 기업-6개 기업과 한 명의 개인에 대해-에 대해 처벌을 내렸다.³⁷ [이란 비확산법(INA)에 관련해서는 이번 호 41페이지의 “미국의 이란 비확산법(INA) 개정돼”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³⁸ 1년 후인 2005년 12월 23일에 미 국무성은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을 이전한 혐의로 6개의 중국 기업을 또다시 처벌했다.³⁹ 6개 중국 기업 중 세 곳 - 중국 항공기술수출입총공사(China Aero-Technology Import Export Corporation [CATIC]), 중국 북방공업공사(China North Industries Corporation [NORINCO]), 지보 체멧 장비주식회사(Zibo Chemet Equipment Company)은 1년 전에도 이미 처벌을 받은 곳이었다.

중국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공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동요는 부시 행정부가 두 가지 면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자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미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DOC])는 미국 내에 있는 중국인들(또는 다른 외국인)에 의한 잠정적인 과학적, 학술적 연구를 훨씬 제한적으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있던 미국의 “간주수출” 정책을

35 Anupam Srivastava, “China’s Export Controls: Can Beijing’s Actions Match Its Words?” Arms Control Today, November 2005, <<http://www.armscontrol.org>>.

36 John R. Bolton, “Coordinating Allied Approaches to China,” Remarks Co-Sponsored by the Tokyo American Center and the Jap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Tokyo, Japan, February 7, 2005, <<http://www.state.gov/t/us/rm/41938.htm>>.

37 U.S. Department of State,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Nine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Removal of Penalties From One Entity,” Federal Register, January 3, 2005, Volume 70, Number 1.

38 “PRC FM Spokesman’s Office: US Sanctions ‘Very Irresponsible,’ ‘Strong Dissatisfaction,’” China Daily, January 7, 2005.

39 U.S. Department of State, “Imposition of Nonproliferation Measures Against Foreign Entities, Including a Ban on U.S. Government Procurement, and Removal of Penalties From One Entity,” Federal Register, 30 December 2005, Volume 70, Number 250.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단순하지만 폭넓은 상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이전에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까지 허가제가 확대됨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되는 장비를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만 다루는 많은 외국인 연구자들도 “간주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간주수출” 허가가 주로 중국 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분야와 학술 영역의 모든 외국인 연구자들에게 해당 개정이 폭넓은 영향을 끼치고, 또한 해당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여론도 일어나 정부 당국자들은 개정 초안을 재고할 수밖에 없었다.⁴⁰

미국 상무성 산하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이 기안한 잠정적인 변화의 두 번째는, 미국 제품이 군사적인 최종용도로 무기금수 조치 하에 있는 국가로 수출되거나 재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군수품 캐치올 (Military Catch-all)” 수출통제 규정의 제정이다. 중국에 적용될 이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모든 상업 물품의 수출업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수출품이 군사 목적의 최종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미국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과 같은 무기 금수국의 군사력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수출허가는 거부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군수품 캐치올” 수출통제 제도를 곧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⁴¹

2005년, 대만 해협의 군사적 균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민감한 물자의 이동을 통제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시 행정부는 유럽연합 (UN) 이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무기 금수조치는 1989년에 중국이 천안문 사태를 무력 진압한 후에 시행되었다. 2005년 초반에 금수조치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면서, 영국 외무장관인 잭 스트로우 (Jack Straw) 는 “아마도” 영국이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되기로 예정된 2005년 7월 전에 금수조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⁴² 하지만 무기금수 조치를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는 2005년 4월에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막기 위한 반분리 법안 (Anti-Secession Law) 을 통과시키면서 극적으로 바뀌었다. 당 법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정당화하고, “중국의 통치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비평화적인 수단과 여타 필요한 조치들”로 대만

정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⁴³ 법안 통과 후에 중국에 대한 EU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 움직임은 일시에 멈추었다. 당 법안은 중국의 명백한 지전략상 (geostrategic) 으로 평가되었으며,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물자의 수출 금지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문제는 유럽연합-중국 간, 그리고 미국-유럽연합 간의 관계에 논쟁점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국가들의 2005 년 주요 수출통제 발전현황

2005년에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의 수출통제시스템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에 평화적 혁명이 일어남에 따라, 수출통제시스템 담당부서를 비롯한 부처 관리에 변화가 생기고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수출통제시스템에 있어 국방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다 강화된 수출통제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이행 규정들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규정들을 통과시켰다.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의 몇몇 국가들은 단독으로 혹은 국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다. 몇몇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는 방사능원의 재고 목록을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다음은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국가들의 주요 발전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과 우크라이나 평화적 혁명에 따른 수출통제시스템의 변화

우크라이나

과거 중국과 이란으로 Kh-55 미사일을 불법 판매한 사실을 시인해

우크라이나는 “오렌지 혁명 (Orange Revolution)” 이후, 2005년 1월 23일자로 정권을 잡은 빅토르 유시첸코 (Victor Yushchenko)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Yuliya Tymoshenko) 국무총리의 새로운 정부 하에서 2005년을 맞이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정부 소유의 무기수출회사인 Ukrspetsekспорт 의 자회사인 Progress Trading Company가 각각 2000년 4월, 핵 장착이 가능한 Kh-55 미사일 6대와 공중발사용 순항미사일 (Air Launched Cruise Missile) 을, 2001년 5월에는 이란에 Kh-55 미사일 6대를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⁴⁴ 이러한 폭로에 잇따라, 2005년 2월 18일에는 유시첸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40 Jim Dawson, “Proposed Export Restrictions Alarm US Researchers,” *Physics Today*, October 2005, <<http://www.physicstoday.org/>>.1>.

41 Donald Alford Weadon, Jr., and Carol A. Kalinoski, “New US export Controls threaten China trade,” *Asia Times*, January 11, 2006, <<http://www.atimes.com/>>.

42 “EU China arms ban ‘to be lifted,’” *BBC News online*, January 12, 2005,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4167693.stm>.

43 Anti-Secession Law, Adopted at the Third Session of the T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March 14, 2005, <<http://english.people.com.cn/>>.

수출통제공사 (Ukraine's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SSEC]) 의장인 올렉산드르 레히다 (Oleksandr Leheida) 를 해임했다. 그 다음 달에는 Ukrspetseksport 사장인 발레리 쉬마로프 (Valeriy Shmarov) 가 해임되었으며, 회사는 포괄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기업 명단에 추가되었다. 2005년 3월 24일에 유시첸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회 (Verkhovna Rada) 의 Serhiy Bondarchuk에게 쉬마로프 (Shmarov) 를 다시 Ukrspetseksport로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2006년 1월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공사 (SSEC) 레히다 (Leheida) 의 복직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⁴⁵

우크라이나 수출통제의 불확실한 미래

2005년 내내, 우크라이나 수출통제 기관의 전망은 밝지 않았다. 2005년 2월 12일에 우크라이나 내각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공사 (SSEC) 는 지금은 해산된 14개의 정부위원회와 공사에 속해있었다. 이후 2005년 3월 2일, 새로 지명된 국방장관 아나톨리 그리셴코 (Anatoliy Hrytsenko) 는 정부가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공사 (SSEC) 를 경제부에 병합하거나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⁴⁶ 그러나 2006년 1월 현재, 우크라이나 수출통제공사 (SSEC) 는 여전히 내각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독립기관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 세관 부패 행태에 제동 걸어

2005년 우크라이나 정부는 세관의 체계를 바로잡고, 우크라이나 세관의 고위관리 사이에 만연한 위법행위와 부패와 싸우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2005년 2월 25일에 유시첸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세관 (State Customs Service [SCS]) 의 세관장인 미콜라 칼렌스키 (Mykola Kalensky) 를 해임하고, 3월 4일에 볼로디미르 스코마로브스키 (Volodymyr Skomarovsky) 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⁴⁷ 스코마로브스키의 지명 후, 유시첸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세관 (SCS) 부의장인 아나톨리 페데슈코

(Anatoliy Pedeshko) 와 안드리 보체츠크 (Andriy Voytseshchuk) 을 해임하고, 우크라이나 세관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⁴⁸ 세관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유시첸코 대통령은 세관의 업무 능력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시첸코 대통령은 2005년 7월 19일에 열린 우크라이나 세관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앞선 6개월 간 세관 업무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50개 지역세관 사무소의 대표들을 부대표로 강등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날 오후, 50개 세관 사무소의 대표들은 대표직을 사임하고 각 세관의 부대표직을 맡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세관의 최고 지위자 - 우크라이나 세관 (SCS) 수석 부세관장인 미콜라 살라고르 (Mykola Salagor) 와 르비브와 라바 루스카 세관의 세관장 2명 - 은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다. 2005년 7월 20일, 우크라이나 세관의 새 세관장으로 내정된 볼로디미르 스코마로브스키 (Volodymyr Skomarovsky) 는 지역 세관 사무소의 대표는 경제행정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⁴⁹

그러나 그의 발표 6개월 후인 2005년 9월 8일, 볼로디미르 스코마로브스키 (Volodymyr Skomarovsky) 는 그가 부패와 밀수에 가담했다는 주장에 따라 세관장직을 물러났다. 2005년 9월 23일에는 올렉산드르 예호로브 (Oleksandr Yehorov) 가 새 세관장으로 임명되었다.⁵⁰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5년에 개혁을 단행한 또 다른 정부기관은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 [NSDC]) 였다. [편집자 주: 1996년 8월 30일자 기록에 따르면,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 (NSDC) 는 국가안보와 방위 분야에서 행정기관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정부기관이다.] 특히 인사부문의 변화는 국가안보 및 방위위원회 (NSDC) 의 하위기관에 영향을 주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산하 군사 기술협력 수출통제 정책 위원회 (Committee on Military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Policy [CMTCEC]). 2005년 6월 16일에 유시첸코 대통령은 유리 프로코페프 (Yuriy Prokofyav) 를 군사 기술협력 수출통제 정책 위원회 (CMTCEC) 선임 부 서기관직과 위원장직에서 해임하고, 2005년 7월 7일에 유리 테레쉬첸코

[nisexcon/index.htm](http://www.nisexportcontrol.com/nisexcon/index.htm).

48 "Ukrainian President Plans Radical Customs Cleanup and Confirms Illicit Missile Transfer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5), pp. 12-13,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49 "Ukrainian President Criticizes Customs Service, Fires Customs Official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 2005), pp. 5-6,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50 "Newly Appointed Head of Ukrainian State Customs Service Resigns amid a Major Government Reshuffl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 3,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44 "Ukraine Investigates Alleged Illicit Weapons Sales to Iran and China," NIS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5), pp. 13-14,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45 Yushchenko Dismisses Heads of Export Control Service and Ukrspetseksport; Appoints New Customs Chief,"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 6-7,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46 "New Ukrainian Cabinet of Ministers Proposes Disbanding the State Service on Export Control,"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 2,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47 Yushchenko Dismisses Heads of Export Control Service and Ukrspetseksport; Appoints New Customs Chief,"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 6-7, <<http://www.cns.miis.edu/pubs/>>.

(Yuriy Tereshchenko) 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⁵¹ 2005년 10월 20일에는 비탈리 크루토프 (Vitaly Krutov) 가 군사 기술협력 수출통제 정책 위원회 (CMTCEC) 선임 부 서기관직에 유리 테레쉬첸코 (Yuriy Tereshchenko) 대신 임명되었다.⁵²

키르기스스탄

“튤립 혁명 (Tulip Revolution)”의 여파에 따른 개혁

2005년 3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아즈카르 아카예르 (Askar Akayer) 대통령을 타도하는 튤립 혁명 (Tulip Revolution)” 이 일어나 정부가 개혁되고, 이는 키르기스스탄 수출통제시스템의 조직상 구조와 관리체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대행인 쿠르마베크 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의 첫 번째 행동은 재정부 산하 세입국 (Committee of Revenues) 의 하위기관이던 세관 (Department of Customs Service) 을 독립기관 - 현재는 내각에 직접 보고를 수행하는 세관감독청 (State Customs Inspectorate) - 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다. 세관감독청의 청장으로는 코로넬 살슨 오마쿨로프 (Colonel Sarsen Omarkulov) 가 임명되었다.⁵³ 한 달 후인 2005년 5월에 바키예프 대통령은 기존의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 을 국경수비대 (Border Guard Troops) 로 개명하고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Service [NSS]) 의 산하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 이 변화로,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 국장으로 새로이 임명되었던 미르자칸 수바노프 (Myrzakan Subanov) 는 국가안보국 (NSS) 의 제 1 부국장이자 국경수비대 (Border Guard Troops) 의 대장이 되었다.⁵⁴ 2005년 9월과 10월에는 각각, 키르기스스탄의 수출허가 담당기관이었던 경제발전, 산업, 무역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Industry and Trade) 가 산업, 무역, 관광부 (Ministry of Industry, Trade, Tourism) 로 개명되고, 알마즈베크 아탐바예프 (Almazbek Atambayev) 가 담당 장관으로 임명되었다.⁵⁵

⁵¹ “Prezident provel kadrovyye naznacheniya” (The President Introduced Personnel Changes), Podrobnosti.ua website, July 7, 2005, <<http://www.podrobnosti.ua/>>.

⁵² “Predsedatelem komiteta po politike VTS i eksportnogo kontrolya Ukrainy naznacheni Yuriy Tereshchenko” (Yuriy Tereshchenko Appointed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Military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Export Control Policy of Ukraine), ITAR-TASS, November 8,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⁵³ “Kyrgyz Customs Service Reorganized,”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p. 5-6, <<http://www.cns.mii.edu/pubs/nisexcon/index.htm>>.

⁵⁴ “Heads of Kyrgyz Border Guard and Emergency Agencies Replaced; Border Guards Subordinated to National Security Servic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p. 6-7, <<http://www.cns.mii.edu/pubs/nisexcon/index.htm>>.

⁵⁵ “Prezident Kyrgyzskoy Respubliki Kurmanbek Bakiyev podpisal ukaz o sovershenstvovanii struktury organov gosudarstvennogo upravleniya

러시아, 지속적으로 수출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러시아의 수출통제 강화와 국방부 (MOD) 의 역할

전반적인 국가 개혁이 한창이던 2004년 3월에 시작된 러시아 수출통제시스템의 개혁은 2005년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러시아 수출통제시스템 내에서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MOD]) 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 국방부 (MOD) 가 경제발전무역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를 대신하여 새로운 수출통제 당국이 되었고, 새로 구성된 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FTECS]) 이 국방부 산하로 들어왔다.

러시아 수출통제에 있어 국방부의 역할이 강화된 사실은, 2005년 발표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4월에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y Ivanov) 는 대통령령 468호에 의해 러시아 연방 수출통제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TECS) 국장인 알렉산드로 그리고로프 (Aleksandr Grigorov) 는 해당 위원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령 468호는 연방 수출통제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량살상무기 (WMD) 와 그 운송수단의 비확산 관련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러시아에는 원래 이러한 연례 보고서를 준비하는 관행이 없었으나, 새 대통령령 468호에 의해 새로이 도입되었다.⁵⁶

보다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y Ivanov) 가 기존 장관직을 유지한 채 2005년 11월 14일자 대통령령 1321호에 의거해 부총리직에 새로이 임명되었다.⁵⁷ 수석 부총리와 부총리, 러시아 연방 정부 대표 등의 의무 규정에 대한 명령 (order on the Distribution of Duties among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Deputy Prime Ministers, and Head of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에 의거하여, 러시아 총리인 미하일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가 2005년

Kyrgyzskoy Respubliki” (President Bakiyev Signed an Edict on Improving the Structure of Government Agencies of the Kyrgyz Republic),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website, October 17, 2005, <<http://www.president.kg/>>.

“Prezident Kyrgyzskoy Respubliki Kurmanbek Bakiyev podpisal ukaz ob Atambayeve A. Sh.”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Kurmanbek Bakiyev Signed an Edict on Atambayev A. Sh.),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website, September 30, 2005, <<http://www.president.kg/>>.

⁵⁶ “President Putin Expands Functions and Modifies Membership of Russian Export Control Commissio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5), pp. 5-7, <<http://www.cns.mii.edu/pubs/nisexcon/index.htm>>.

⁵⁷ Presidential Edict No. 1321 of November 14, 2005, “O zamestitele Predsedatelya Pravi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Ministre oborony Rossiyskoy Federatsii” (On the Deputy Prime Minister. Minister of Defens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

11월 26일에 해당 사항에 대한 승인을 내림으로써,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y Ivanov) 가 부총리로써 러시아 군-기술 협력과 수출통제 현안들에 대한 감독권을 유지하게 된다.⁵⁸

러시아 수출통제위원회 회의

러시아 수출통제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을 맡게 된 이바노프 (Ivanov) 장관은 다방면에 걸쳐 러시아 수출통제 정책에 대해 논의한 세 차례의 수출통제위원회 회의를 주관했다. 정부의 개혁과제로 인한 긴 휴식 끝에, 수출통제위원회는 2005년 6월 29일에 첫 회의를 가졌다. 이바노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수출통제 업무에 있어서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고, 이웃국가들의 확산활동을 감시하는데 있어 러시아 보안국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 수출자들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내부 이행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출통제와 비확산에 관련된 기존 법규와 개정 가능성 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⁵⁹

2005년 10월 26일에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이바노프 장관은, 위원회가 2006년 초에 러시아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관련 정책을 정리한 백서를 출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백서는 또한 빈약한 수출통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을 것이다. 10월 26일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위험요소의 최근 경향; 세관 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들의 허가 문제; 수출자-조직의 내부 이행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PSI 가입의 실제 영향 검토; 흑해와 카스피해 주둔을 위한 특별 해군 병력 도입 여부 등의 의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⁶⁰

가장 최근인 2005년 12월 27일에 이루어진 세 번째 회의에서, 수출통제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국제 협력 프로그램 하에서 러시아가 외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국내 수출통제

이행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⁶¹ [편집자 주: G8 글로벌 파트너십 (G8 Global Partnership) 은 G8 국가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이 2002년에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Kananaskis) 에서 회의를 진행한 후, 비확산, 군축, 보복테러, 핵 안보 등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G8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이전 소비에트 연방 소속 공화국들을 포함한 여타 다른 국가들의 비확산 프로젝트를 위해 10년간 총 200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채택된 수출통제 관련 법규

2005년에 러시아 정부는 정부 기관들의 담당 업무 능률화, 허가절차 간소화, 수출통제 이행 강화, 러시아 통제목록 갱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수출통제 관련 법규들을 도입했다.

2005년 2월 4일에 미하일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러시아 총리는 수출통제 사안 관련 러시아 연방정부 법규 개정 (On Changes to Certain Act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ulating Export Control Issues) 에 관한 정부 명령 54호를 승인했다. 이 명령은 현 정부가 수출절차와 수출통제 용어를 재구성하고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 법규 원문상의 변화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⁶²

2005년 5월 16일에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러시아 연방의 생물학적, 화학적 안보 영역에서의 연방 기관들의 권한 분리 (On the Division of Authority among Federal Agencies in the Sphere of Biological and Chemical Security of the Russian Federation) 에 관한 정부 명령 303호를 승인했다. 해당 명령은 생화학 안보 분야에 관련된 연방 기관들의 관련 책임사항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명령에 의거하여, 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TECS) 은 생화학무기의 개발과 그 운송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러한 물품의 수출에 대한 국가 전문가들의 권고 내용을 이행한다. 이에 덧붙여, 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TECS) 은 관련 연방 기관, 조직들과 협력하여 수출통제 대상이

58 "Raspredeleniye obyazannostey mezhdru Pervym zamestitelem, zamestitelyami Predsedatelya Pravi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Rukovoditelem Apparata Pravi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The Distribution of Duties among the First Deputy Prime Minister, Deputy Prime Ministers, and Head of the Office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November 26, 2005, <http://www.government.ru/data/static_text.html?he_id=1075>.

59 "Russian Defense Minister Proposes Export Control Reform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ly 2005), p. 2, <<http://www.cns.mii.edu/pubs/nisexcon/index.htm>>.

60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service, "Vladimir Putin proved soveshchaniye s chlenami Pravitelstva" (Vladimir Putin Held a Meeting with Cabinet Members), Center of Parliament Communications ParlKomm website, November 1, 2005, <<http://www.parlcom.ru/index.php?p=MC83&id=6304>>.

61 Ministry of Defens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service, "V Moskvu proshlo ocherednoye zasedaniye Komissii po eksportnomu kontrolyu Rossiyskoy Federatsii" (Regular Meeting of the Export Control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was Held in Moscow), Center of Parliament Communications ParlKomm website, December 28, 2005, <<http://www.parlcom.ru/index.php?p=MC83&id=7730>>.

62 Decree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4 of February 4, 2005, "O vnesenii izmeneniy v nekotoryye akty Pravi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reguliruyushchiye voprosy eksportnogo kontrolya" (On Changes to Some Act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Regulating Export Control Issues), Rossiyskaya gazeta, February 15,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되는 생화학 물질의 목록 초안을 개발할 책임을 지고 있다.⁶³

2005년 8월 15일에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는 외국이나 외국인에 의하여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및 그 운송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정보, 활동, 용역, 지적 재산 등의 거래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의 수출통제위원회가 허가권을 갖는 것 (On licensing by the Export Control Commi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of Transaction with Goods, Information, Activities,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 Can be Used by a Foreign State or Foreign National to Cre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을 승인하는 정부 명령 517호에 서명했다. 새로운 정부명령은 러시아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기술의 거래에 대한 허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수출자들이 수출통제에 대한 러시아 법률 제 20조에 규정된 캐치올 조항 (Catch-all) 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⁶⁴

2005년 11월 9일, 러시아 하원 (Russian State Duma) 은 수출통제에 관한 관리규범 위반 관련 조항 (sections of the code of administrative offences) 의 개정을 승인했다. 2005년 7월 28일에 열린 러시아 각료 회의에서 러시아 법무부 장관인 유리 차이카 (Yuriy Chayka) 가 해당 법규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 (Putin) 이 서명한 당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통제 규정 위반에 대해 벌금이 보다 무거워지고, 징역형량에 있어서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형량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수출통제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TECS) 과 각 지역 당국의 권한이 늘어나게 되었다.⁶⁵

2005년 11월 14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핵 수출통제 목록에 변화를 가져올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핵 물질, 장비, 특정 비핵물질, 그리고 관련 기술 목록의 갱신에 관한 (On Changes to the List of Nuclear Materials, Equipment, Special Non-Nuclear Materials, and Respective Technologies Subject to Export Control) 명령 1318호에 서명했다. 당 명령은 러시아의 국제 핵 비확산 의무에 따라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특정 장비와 비핵물질의 상세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⁶⁶ 다음 달인 2005년 12월 1일, 푸틴 대통령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무기와 군 관련 장비의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 목록의 갱신에 관한 (On Changes to the List of Dual-use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Produc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and Are Subject to Export Control) 명령 1384호에 서명했다. 이번 갱신은 러시아의 전략물자 이중용도 목록을 바세나르 협약 (WA) 의 통제 목록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⁶⁷

2005년 12월 2일, 푸틴 대통령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장비, 물질, 기술 등의 목록 갱신에 관한 (On Changes to the List of Equipment, Material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Produce Missiles and Are Subject to Export Control) 명령 1395호를 승인했다. 당 명령에 따라 러시아의 관련 통제목록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기술부속서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갱신된다.⁶⁸ [편집자 주: 한국의 서울에서 2004년 10월 6일-8일 동안 열린 19번째 연례 총회에서 MTCR 가입국들은 기술부속서의 갱신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활동에 대한 추가정보는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이번 호의 “2005년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관”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방사능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통제를 강화해

2005년에 착수된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방사능원에 대한 수색과 재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틀립 혁명”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키르기스스탄은 분실되거나 유기된 방사능원에 대한 부분적인 수색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까지 절도나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던 방사능 관련 물품 1000개 정도를

63 “Russian Government Distributes Responsibilities in the Area of Chemical and Biological Security,”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 2005), pp. 3-4,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64 “Russia Adopts New Licensing Rules to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Catch-All Provisio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3-4,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65 “Russia to Amend Administrative Offenses Code to Strengthen Export Control,”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 2005), p. 5,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Irina Granik, Konstantin Lantratov and Ivan Safronov, “Rossiya uzhestochila kontrol za eksportom vysokikh tekhnologiy” (Russia Strengthened Control Over Exports of High Technologies), Kommersant, November 10, 2005, p. 3;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66 Presidential Edict No. 1318 of November 14, 2005, “O vnesenii izmeneniy v Spisok yadernykh materialov, oborudovaniya, spetsialnykh neyadernykh materialov i sootvetstvuyushchikh tekhnologiy, podpadayushchikh pod eksportnyy kontrol” (On Changes to the List of Nuclear Materials, Equipment, Special Non-Nuclear Materials, and Respective Technologies Subject to Export Control),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

67 Presidential Edict No. 1384 of December 1, 2005, “O vnesenii izmeneniy v Spisok tovarov i tekhnologiy dvoynogo naznacheniya, kotoryye mogut byt ispolzovany pri sozdanii vooruzheniy i voyennoy tekhniki i v otnoshenii kotorykh osushchestvlyayetsya eksportnyy kontrol” (On Changes to the List of Dual-Use Commoditie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Produce Weapons and Military Equipment and Are Subject to Export Control), Rossiyskaya gazeta, No. 275 (3944), December 7,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68 Presidential Edict No. 1395 of December 2, 2005, “O vnesenii izmeneniy v Spisok oborudovaniya, materialov i tekhnologiy, kotoryye mogut byt ispolzovany pri sozdanii raketnogo oruzhiya i v otnoshenii kotorykh ustanovlen eksportnyy kontrol” (On Changes to the List of Equipment, Materials and Technologies That Can Be Used to Produce Missiles and Are Subject to Export Control), Rossiyskaya gazeta, No. 275 (3944), December 7, 2005; in Integrum Techno, <<http://www.integrum.com>>.

찾거나 넘겨받았다.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따르면, 확보해야 할 물질이 500개 정도 더 있으며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여전히 많은 방사능 물질이 미확인 상태에 있다.⁶⁹

2005년 여름에 접어들 무렵,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zakhstani Atomic Energy Committee [KAEC]) 와 보건부는 카자흐스탄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된 방사능원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재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카자흐스탄 국내에 있는 방사능원의 현재 사용, 저장 상태를 확인하고 무적 방사능원 (Orphan Source) 과 유기된 방사능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⁷⁰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위원장인 티무르 잔티킨 (Timur Zhantikin) 에 따르면, 산업 분야와 연구시설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방사능원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무적 방사능원 (Orphan Source) 의 수집과 이후 처리 등을 위해 지역 당국들이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⁷¹ [편집자 주: 2006년 1월 현재,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는 당초 2005년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방사능원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방사능원에 대한 재고조사와 함께, 두 군데 - 카자흐스탄 동부 우스트-카메노고스크 (Ust-Kamenogorsk) 에 있는 전(前) 이리티쉬 (Irtysk) 화학공장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 (Aktau) 에 있는 망기스타우 (Mangystau) 원자력에너지 합동회사 (combine) - 의 방사능원 매립부지 정비를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⁷²

2005년 한 해 동안, 미국은 카자흐스탄 내 무적 방사능원의 조사를 수행할 전문가들의 교육을 담당할 훈련 인력을 지원했다. 가장 최근의 교육은 2005년 11월 16-17일 양일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Almaty) 의 핵물리연구소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에서 있었으며, 미국 방위위협제거청 (Defense Threat Reduction Agency [DTRA]) 과 카자흐스탄 내 미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가 “방사능원의 탐지와 대응” 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조직했다. 해당 세미나는 방사능 물질과 관련한 향후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핵 방사능 물질을 통제, 탐지, 확인 능력 향상을 위해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가 조직한 교육 세미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이 세미나는 관련 정부 기관들과

여타 당사자들 간의 조정을 포함한다. 방사능원의 조사와 확보를 위한 참가자들의 기량 향상에 목적을 둔 이번 세미나에, 방사능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비상대응 책임을 지고 있는 20명의 지역 대표들이 참석했다. 미국 교육관은 참가자들에게 방사능 물질의 탐지와 통제 방책들을 알려주고 현장조사 실습도 실시했다. 세미나의 말미에, 미국 대사관이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에 특수 방사능탐지 장비와 개인보호 장비 등을 기증했다.⁷³

2005년 10월 11-14일 사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국경에서의 핵 방사능 물질의 통제, 탐지, 확인, 그리고 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의 지역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0개국 이상의 국가 당국자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발생한 핵 방사능 사고들을 재검토하고 해당 물질의 연구와 운송 과정에서 비상대응 인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동시에, 이러한 사고들의 법적 측면을 검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IAEA에서 제공한 특수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운송시설에 숨겨진 방사능 물질을 찾아내는 실제 현장실습도 이루어졌다.⁷⁴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의 위원장인 티무르 잔티킨 (Timur Zhantikin) 은 세미나 중에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핵 방사능 물질의 수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카자흐스탄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정부 기관들이 그들의 활동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 방사능 물질의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 방사능 탐지 장비는

키르기스스탄 국경의 코르데이 (Korday) 검문소,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도스틱 (Dostyk) 철도역, 알마티 국제공항 등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가 IAEA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핵 방사능 물질의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포괄적인 대응방안 (Response Plan) 을

⁶⁹ “Kyrgyz Authorities Secure 1,000 Radioactive Sources, Continue to Search,”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5-16, <<http://www.cns.miiis.edu/pubs/observer/index.htm>>.

⁷⁰ “Kazakhstan Hosts Seminar on Search for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Inventory of Radiation Sources to Be Held in Kazakhsta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5), p. 3, <<http://www.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⁷¹ “Inventarizatsiya radiatsionnykh istochnikov na territorii Kazakhstana budet zavershena do kontsa 2005” (An Inventory of Radioactive Sources in Kazakhstan will be Completed by the End of 2005),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October 11, 2005; in Gazeta.kz, <<http://www.gazeta.kz/>>.

⁷² “Kazakhstan Hosts Seminar on Search for and Security of Radioactive Sources; Inventory of Radiation Sources to Be Held in Kazakhsta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5), p. 3, <<http://www.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⁷³ Konstantin Borodinov, “Eksperty SShA obuchayut metodam poiska i obnaruzheniya radioaktivnykh istochnikov” (U.S. Experts Teach Methods for Searching and Detecting Radioactive Sources), Kazinform News Agency, November 15, 2005, <<http://www.inform.kz/>>.

세워야 한다. 이 대응방안은 핵 방사능 사고를 다루는 관련 기관 간의 조정 절차를 명기하게 될 것이다.⁷⁵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은 또한 핵 방사능 물질의 수출을 감시하기 위해 세관 통제위원회 (Customs Control Committee [CCC]) 산하에 특별 조직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1995년에 핵분열성 물질과 방사능 물질의 세관 통제를 위한 특별국 (Special Service for Customs Control of Fissile and Radioactive Materials) 을 설립한 러시아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티무르 잔티킨 (Timur Zhantikin) 위원장은 또한,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 위원회(KAEC)에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나드는 핵 밀수 사건이 적발된 적은 없지만, 중국 기업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금속 조각들 (scrap metal) 을 카자흐스탄으로 환적한 사건을 여러 건 확인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특별히 언급했다.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은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가 종종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서” 환적된 방사능 금속 조각들의 행방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다. 잔티킨 (Zhantikin) 위원장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원자력에너지위원회 (KAEC) 에 이런 사건들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기관은 카자흐스탄 국경수비대 하나뿐이다. 그는 특별 세관 조직을 창설함으로써 핵 방사능 물질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⁷⁶

국경통제의 강화

2005년,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의 몇몇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국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국의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그루지아

2005년 12월 6일, 그루지아는 미국과 함께 핵 방사능 물질의 밀수를 막기 위한 협력협정 (Cooperation Agreement) 을 체결했다.

⁷⁴ Mezhdunarodny seminar po kontrolyu, obnaruzheniyu, identifikatsii i reagirovaniyu na intsidenty s yadernymi i radioaktivnymi materialami na granitse”

⁷⁵ “V Kazakhstane net chetkoy programmy po predotvrashcheniyu vvoza v stranu radioaktivnykh i yadernykh materialov” (Kazakhstan Lacks a Clear Program to Prevent Exports of Radioactive and Nuclear Materials), Centran News Agency, October 12, 2005, <<http://www.centran.ru/>>. “Natsionalnyy plan po reagirovaniyu na intsidenty s radioaktivnymi materialami budet utverzhen v RK do kontsa 2005 goda” (A National Response Plan For Incidents With Radioactive Materials Will Be Approved In Kazakhstan By The End Of 2005),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October 11, 2005; in Gazeta.kz, <<http://www.gazeta.kz/>>.

⁷⁶ “Glava kazakhstanskogo komiteta po atomnoy energetike za sozdaniye na tamozhne spetspodrazdeleniya po kontrolyu za yadernymi materialami” (The Chairman of the Kazakhstani Atomic Energy Committee Calls for the Creation of a Special Customs Unit to Control Nuclear Materials), Interfax-Kazakhstan, October 11, 2005.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특수 방사능탐지장비를 그루지아 국경에 설치하고, 해당 장비의 사용을 위해 그루지아 인력을 교육시키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장비는 (아르메니아 국경에 위치한) 사다클로 (Sadakhlo) 국경 검문소,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카즈베기 (Kazbegi) 국경 검문소 그리고 포티 (Poti) 와 바투미 (Batumi) 항구 등의 시설에 시범 설치될 것이다.⁷⁷

카자흐스탄

2005년 7월 26일, 카자흐스탄 각료들은 국경수비국과 다른 관련 기관들의 장비 개선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의 육지와 해상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제시된 여러 방안 중 하나는 최신 방위 항공시스템의 개발, 인도, 지원 등에 종사하는 다국적 기업인 BAE 시스템 (BAE System) 사가 제작한 7대의 육해상 국경 순찰용 디펜더 4000 비행기 (Defender 4000 aircraft) 와 관련 육상용 장비의 구입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었다.⁷⁸

이에 덧붙여, 2005년 7월에 카자흐스탄 재정부 산하 세관 통제위원회 (CCC) 는 소위 “one-stop 원칙 (one-stop principle)” 에 기반을 둔 통합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한 3개의 검문소를 새로 열었다. 세관, 국경 수비, 운송차량 통제, 농축산 병원군 통제 그리고 위생-검역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정을 통해, 각 검문소의 한 건물 안에서 필요한 통제 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세관 통제위원회 (CCC) 는 2008년까지 통합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25개의 검문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덧붙여, 2006년부터 카자흐스탄-러시아 공동 세관 통제 절차가 새로 설치되는 통합 검문소에서 시행될 것이다. 양 국가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을 따라 총 19개의 공동 검문소 - 러시아 측에 10개와 카자흐스탄 측에 9개 - 을 설치할 계획이다.⁷⁹

러시아

2005년 4월 27일, 미국 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과 러시아연방 관세청 (Federal Customs Service [FCS]) 은 미-러시아 간 2차 방어선 (Second Line of

⁷⁷ “Gruziya podpisala soglashiye o sotrudnichestve s SShA s tselyu presecheniya kontrabandy yadernykh materialov” (Georgia Signed a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imed to Prevent the Smuggling of Nuclear Materials), Gruziya Online website, December 6, 2005, <<http://www.apsny.ge/>>.

⁷⁸ “Kazakhstan Strengthens Borders; Opens Integrated Checkpoint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 2005), p. 2,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⁷⁹ “Kazakhstan Strengthens Borders; Opens Integrated Checkpoint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ugust 2005), p. 2,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Defense [SLD])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지속가능계획 (Sustainability Plan) 에 서명했다. 해당 문서는 미-러 양국에게 러시아 국경에서 일어나는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 밀매를 막기 위한 2차 방어선 (SLD) 프로그램에 기반한 양국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⁸⁰ S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7월 21일, 모스크바에 소재한 러시아연방 관세청 (FCS) 본부에 핵분열성 물질과 방사능 물질에 대한 대응과 세관 통제 센터 (Response and Customs Control Center for Fissile and Radioactive Materials) 가 개설되었다. 센터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해서는 미국 국무성이 자금을 지원했다. 해당 센터의 설립은 SLD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러시아 세관이 필요로 하는 다차원적 정보관리 시스템의 첫 단계를 밟은 것이다. 이 시스템은 자동화된 방사능 통제 절차를 도입하고 세관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지원함으로써 러시아 내 핵분열성 물질과 방사능 물질에 대한 기존 세관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⁸¹

우크라이나

2005년 4월 22일, 미국 국가핵안보국 (NNSA) 과 우크라이나 국경수비국 (State Border Guard Service) 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상 국경 검문소, 공항, 항구 등에 방사능 탐지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정에 조인했다. 미국은 SLD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해 고안된 특수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해당 협정은 2005년 4월 4일, 빅토르 유시첸코 (Viktor Yushc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이루어진 조지 부시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과 유시첸코 대통령의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에 따른 것이다. 양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확산에 대항한 투쟁의 새 장을 열기로” 하고, “비확산, 수출통제, 국경보안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에 대한 불법 밀매의 저지, 탐지, 금지, 검사, 기소; 핵과 방사능원의 보안 강화; 사후 핵연료의 처리 등을 위한 법규 이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⁸²

몰도바

2005년 11월 하순, 2005년 6월경에 몰도바-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의 트랜스니스트리아 (Transnistria) 와의 국경에 컴퓨터 네트워크, 감시 카메라, 야간투시 장비 등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청한데 이어, 유럽연합 (UN) 은 우크라이나-몰도바 국경에 유럽연합의 국경지원사절단 (Border Assistance Mission [BAM]) 을 배치했다. EU 사절단의 임무는 트랜스니스트리아를 통해서 오가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업 목적의 민간 밀수뿐 아니라, 무기, 마약, 인력 등의 밀매를 억제하는 것이다.⁸³ [편집자 주: 트랜스니스트리아는 1991년에 몰도바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나, 아직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 승인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경이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효과적인 국경통제체제도 갖추지 못하여, 현재 트랜스니스트리아는 밀수와 무기 밀매의 천국이다.]

기타 소식

카자흐스탄, 생물무기협약(BWC)에 가입

2005년 11월 16일, 카자흐스탄 하원 (Mazhilis) 은 카자흐스탄의 생물무기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가입을 승인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당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이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⁸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수출통제를 위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협정 비준

2005년 12월 14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의 수출통제 관리협정 비준안 (On the Ratification of the Agreement on a Common Order of Export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에 서명했다. EURASEC 수출통제 관리협정은 지난 2003년 10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회원국 중 5개국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 이 모여 통과시킨 것이다.⁸⁵ 2005년 12월 22일에는 바키예프 (Bakiyef)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EURASEC 수출통제 관리협정

⁸³ Vladimir Socor, “European Union Deploys First Border Monitoring Mission,” Eurasia Daily Monitor, December 5, 2005, Jamestown Foundation website, <<http://www.jamestown.org/>>.

⁸⁴ Mazhilis odobril prisoyedineniye respublik k konvetsii o zapreshchenii bakteriologicheskogo oruzhiya” (The Mazhilis Approved the Country’s Joining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Bacteriological Weapons),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November 16, 2005; in Gazeta.kz, <<http://www.gazeta.kz/>>.

⁸⁵ “Kazakhstan ratifitsiroval Soglasheniye o yedinom poryadke eksportnogo kontrolya gosudarstv-chlenov EvrAzES” (Kazakhstan Ratified the Agreement on a Common Order of Export Control by Member States of the EURASEC),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December 14, 2005; in Gazeta.kz, <<http://www.gazeta.kz/>>.

비준안에 서명했다.⁸⁶ 이로써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벨라루스에 이어 EURASEC 협정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준한 국가가 되었다. 협정에 따르면, EURASEC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와 여러 종류의 군무기, 장비 등의 생산이나 대량살상무기의 운송 수단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상품, 장비, 기술, 용역 등을 아우르는 공통의 표준화된 수출통제 규범, 규칙, 법규 등을 제정하게 된다.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기술에 대한 공통의 통제 목록을 만드는 동시에, EURASEC 회원국들은 자국의 수출통제 절차에 캐치올 (Catch-all) 조항을 도입하고, 표준화된 허가문서 양식을 채택함에 아울러 수출허가의 발행, 보류, 철회, 금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편집자 주: EURASEC 수출통제 관리협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3년 11월호 2-3페이지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EURASEC) 회원국 총리들, 수출통제 협정에 서명해" 기사와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3년 12월/2004년 1월호 8-10페이지의 "2003년 NIS 지역기구와 수출통제"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www.cns.miis.edu/pubs/nisexcom/index.htm>>.]

몰도바, 공식 수출통제 웹사이트 개설

2005년, 몰도바 공화국의 공식 수출통제 웹사이트가 개설되었다. 해당 웹사이트는 경제통상부 산하의 수출통제국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수출통제국은 전략물자와 기술의 수출, 재수출, 수입, 이전 등의 통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웹사이트는 몰도바의 비확산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정부 기관인 몰도바 비확산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of the Republic of Moldova)가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설계한 것이다. 몰도바 수출통제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cems.md>> 이다. 이 웹사이트는 몰도바의 수출통제 관련 국내 규정, 몰도바가 조인한 국제협약, 통제 목록, 허가신청서 양식, 여타 유용한 정보들과 링크 등 몰도바의 수출통제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를 통해, 전략물자의 분류에 관한 질문 등 수출통제 관련 문의도 할 수 있다.⁸⁷

러시아, 타지키스탄에서 철수해

2005년 6월,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주둔하고 있던 국경 주둔군을 최종적으로 철수시키고

⁸⁶ "Prezident Kyrgyzskoy Respubliki Kurmanbek Bakiyev podpisal Zakony Kyrgyzskoy Respubliki" (President Kurmanbek Bakiyev Signed Laws of the Kyrgyz Republic),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website, December 28, 2005, <<http://www.president.kg/>>.

⁸⁷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in the Republic of Moldova website, <<http://www.cems.md/en/index.php>>.

기지를 타지키스탄 국경보호위원회 (Committee for State Border Protection of Tajikistan)에 넘김으로써, 13년간에 걸친 그들의 타지키스탄 국경 주둔을 끝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타지키스탄은 러시아 연방 보안운영 국경수비그룹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Operational Border Guard Group)을 창설하는데 동의하고,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각각의 타지키스탄 국경 검문소에 3-5명의 러시아 국경수비관이 자문인으로서 계속 근무하며, 몇몇은 지방 국경수비인력을 양성하는 타지키스탄 국경수비 교육센터 (Tajik Border Guard Training Center)에서 일하게 된다. 더욱이 이전의 러시아 제21 보병 사단은 러시아 국방부 제4 기지로 변환되어 타지키스탄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게 되었다.⁸⁸ 러시아 국경수비대의 타지키스탄 철군에 이어, 2005년 9월에 타지키스탄 당국자는 발표를 통해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005-2007년 사이에 3000만 달러 가량의 외국원조를 받기 원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은 기존의 국경 기지들을 개보수하고, 국경 기지를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도록 건설하고 장비하는데 사용될 것이다.⁸⁹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istan),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협정과 추가의정서 비준

2005년 5월 17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외교부 장관인 라쉬드 무라도프 (Rashid Muradov)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 무하마드 엘바라데이 (Mohamad ElBaradei)는 핵확산금지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과 관련한 투르크메니스탄-IAEA간 안전협정 (Safeguards agreement)과 추가의정서를 체결, 비준했다.⁹⁰ [편집자 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4년 9월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비준했다. 협약의 가입국은 자국의 모든 핵활동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게 되며; IAEA의 "포괄적 안전협정"에 따라야 하고; 자발적으로 "추가의정서"를 비준하고, IAEA에 추가적인 감시권을 제공해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신생독립국가연합 (NIS) 가입국 중 마지막으로 IAEA의 포괄적 안전협정과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나라이다.] 2005년 12월 24일, 투르크메니스탄 의회 (Medjlis)는 IAEA 안전협정과 추가의정서 비준을 승인했다.⁹¹

⁸⁸ "Russian Border Guards Withdraw from Tajik-Afghan Border,"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5), pp. 4-6, <<http://www.cns.miis.edu/pubs/nisexcom/index.htm>>.

⁸⁹ "Tajik Authorities Call for Support to Protect Sections of the Tajik-Afghan Border,"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 9-10,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⁹⁰ "Turkmenistan Signs IAEA Additional Protocol,"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5), pp. 2-3, <<http://www.cns.miis.edu/pubs/nisexcom/index.htm>>.

⁹¹ Turkmenskiy parlament ratifitsiroval Soglasheniye mezhdru Turkmenistanom i MAGATE" (The Turkmen Parliament Ratified an Agreement between Turkmenistan

우크라이나, 미국과의 협약에 서명하고 IAEA 추가의정서 비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방사능 탐지 장비 설치를 위한 조약 체결에 이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비확산과 수출통제 관련 조약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체결했다. 2005년 5월 26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고위험 방사능 물질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방부 국가핵안보국 소속의) 세계방사능위협제거청 (Office of Global Radiological Threat Reduction) 이 우크라이나 비상대책부 (Ministry of Emergencies) 가 라돈 특별화합물 (Radon Special Combines) 라고 불리는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키예프 (Kiev), 르비브 (Lviv), 오데사 (Odessa), 도네스크 (Donetsk), 드니프로페트로보스크 (Dnipropetrovsk), 카르키브 (Kharkiv) 등의 6개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⁹² 2005년 8월 29일, 1년 넘게 계속된 미국-우크라이나 간 협상의 결과로 두 나라는 생물테러와, 생물무기와 기술, 관련 물질, 전문 지식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관련 주요기관인 오데사의 메치니코프 반전염병 과학연구소 (Mechnikov Anti-plague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와 키예프 중앙위생역학분석국 (Kiev Central Sanitary and Epidemiological Station) 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중보건연구소에 저장되어 있는 생물 병원균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에 덧붙여,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염병의 출현을 탐지, 식별, 치료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출현한 전염병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테러의 결과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범국가적 체계를 갖춘 역학감시국 (epidemiological monitoring stations) 을 설립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⁹³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인 비확산 약속에 따라, 2005년 11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 (Verkhovna Rada) 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관련한 IAEA의 안전협정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비준하고, 유시첸코 (Yushchenko)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⁹⁴ 연초인 2005년 1월 12일에는 IAEA 추가의정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추가의정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우크라이나 의회가 추가의정서 수행에 따른 재정적 비용 문제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2005년 1월에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실제 이유는 국회가 비준안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⁹⁵

불법 밀매

불법 공급망에 노출된 유럽 수출통제시스템의 허점 드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걸친 대량살상무기 불법 공급망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의 수출통제와 비확산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 2004년에 압둘 콰히르 칸 (A.Q. Khan) 박사가 파키스탄을 근거로 하여 조직한 밀매망이 발각된 이후, 2005년에는 불법 밀매 사건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기사는 2005년 동안 적발된 다양한 불법 밀매 사례와, 이 밀매 그룹들이 수출통제를 어떻게 교묘히 피할 수 있었는지(그리고 어떻게 계속할 것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가령, 칸 (A.Q. Khan) 박사와 연계되어 유럽에 근거를 둔 사업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발생, 2005년 동안 재판이 진행된 몇몇 사건들을 보더라도, 주요 선진국들의 수출통제시스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의 확산 - 개발도상국의 통제시스템에 더 빈번히 관련되는 문제 - 을 방지하는데 정책적으로나 방법적인 면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기사는 민감한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파키스탄 정부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자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슬라마바드 (Islamabad) 가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불법 조달을 통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등, 2005년에도 파키스탄에 근거를 둔 불법 공급망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포착되었다.

유럽 수출통제의 약점을 드러낸 수출통제 위반사건들

압둘 콰히르 칸 (A.Q. Khan) 과 그의 밀매망이 많은 국가의 수출통제시스템을 교묘히 빠져나간 사실은 유럽의 수출통제체제와 최근 비확산체제들의 집행상 문제점을

between Ukraine and the IAE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in Connection with the NPT, President of Ukraine website, <<http://www.president.gov.ua/>>.

and the IAEA), Turkmenistan.ru electronic newspaper, December 24, 2005, <<http://www.turkmenistan.ru/>>.

⁹² "United States to Improve Security of High-Risk Radioactive Sources in Ukrain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ne 2005), pp. 8-9,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⁹³ "United States and Ukraine Sign Biological Threat Reduction Agreemen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 6,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⁹⁴ Law of Ukraine No. 3092-V of November 16, 2005, "O ratifikatsii Dopolnitelnogo protokola k Soglasheniyu mezhdru Ukrainoy i Mezhdunarodnym agentstvom po atomnoy energii o primenenii garantii v svyazi s Dogovorom o nerasprostraneni yadernogo oruzhiya" (On the Ratif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 to the Agreement

드러내고 있다.

칸 (A.Q. Khan) 의 밀매망의 활동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 중 많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안정된 수출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럽국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모든 유럽연합 (UN) 회원국들은 핵공급국그룹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T) 등 국제공급국체제의 가입국이다. 이러한 국제공급국체제들은 자신들의 표준 지침을 불법밀매가 점점 어려워지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칸 (Khan) 의 밀매망과 같은 불법조직들은 국제공급국체제들이 만들어놓은 장애물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칸 (Khan) 의 밀매망이 유럽의 국내 수출통제시스템을 빠져나가는 수법은 이미 유명하고, 수출통제시스템이 비교적 불완전하고 미숙한 국가들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그들의 주요 수법은: 수출입 허가 신청서에 최종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용용도를 허위기재하거나, 통제목록에 근접하지만 목록에 속하지 않는 물품을 입수하는 것 (하지만 실제 수출 목적지와 최종용도가 발각된다면 “캐치올[Catch-All]”의 규제를 받게 되는) 등이다.⁹⁵ NuclearFuel 의 2005년 11월호, 마크 힙스 (Mark Hibbs) 의 기사에 따르면, 파키스탄 칸 연구소 (Khan Research Laboratories [KRL]) 는 “확산자들이 사용하지 않을” 물품을 다량으로 주문하고 그 중 일부 필수적인 물품을 빼돌림으로써, 유럽의 수출통제 담당자들을 속이는 수법도 사용했다.⁹⁷ 이러한 간단한 수법으로 그들은 수출통제 담당자들이 막대한 양의 업무에 시달리게 하고 민감한 물자의 불법적 유통을 저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제압해 버렸다.

이에 대한 예로써, 최근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에서 발생한 적발 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볼 사건들은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이란, 북한 등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수출통제를 위반한 사건들이다.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네덜란드의 사업가이며 약 30년간 칸 (Khan) 박사과 함께 일해 온 헝크 슬레보스 (Henk Slebos) 에 관련된 것으로, 그는 칸 (Khan) 박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조달하고 기술적 조인을 제공하는 등 칸 박사가 원심분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⁹⁵ “Ukrainian Parliament Fails to Ratify Additional Protocol,”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 2-3,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⁹⁶ For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Khan network see, “A. Q. Khan Nuclear Chronology” by Michael Laufer on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ebsite, <<http://www.carnegieendowment.org/publications>>. Kenley Butler, “How the Abdul Qadeer Khan Network Circumvented Export Control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22-24,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⁹⁷ Mark Hibbs, “KRL Hid Purchase of Sensitive Goods in Orders for ‘Junk,’ Records Say,” Nuclear Fuels, November 21, 2005, p. 7.

헝크 슬레보스 (Henk Slebos)

네덜란드의 사업가인 헝크 슬레보스는 2005년 12월 16일, 징역 1년 (8개월의 집행유예) 과 100,000유로 (120,000달러) 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슬레보스는 압력계, 트리에틸아민 (미사일 추진체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흑연, 오링 (O-rings) 등의 통제 물자를 파키스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네덜란드 당국에 따르면, 슬레보스와 그의 회사가 수출한 물자들은 파키스탄 칸 연구소 (KRL) 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 산업자동화연구소 (Institute of Industrial Automation [IIA]) 로 갈 것이었다. 슬레보스 회사의 직원인 조란 필리포빅 (Zoran Filipovic) 도 수출허가 위반 혐의로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5,000유로 (5,100달러) 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⁹⁸ 필리포빅은 독일의 수출허가 규칙을 빠져나가기 위해 칸 박사에게로 가는 다양한 통제물자들을 네덜란드에서 발칸반도의 국가들로 수송했다.⁹⁹

슬레보스는 1960년대에 네덜란드의 델프트 기술대학 (Delft Technical University) 을 다니면서 칸 박사를 처음 만났다. 칸 박사가 1970년대 중반 네덜란드를 떠났을 때, 야금전문 기술자인 슬레보스는 칸 박사에게 핵 관련 물자를 공급하기 시작했다.¹⁰⁰ 칸 박사의 절친한 친구를 자처하는 슬레보스는 파키스탄 과학자들에게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유럽의 주요 제공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⁰¹ 사실 네덜란드 당국은 초창기부터 그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었다. 슬레보스의 예전 동료인 니코 존닥 (Nico Zondag) 에 따르면, 슬레보스는 1977년에 존닥을 칸 박사에게 핵 관련물질을 공급하는 공급망에 포섭하려고 했다. 당시 존닥은 슬레보스를 네덜란드 당국에

⁹⁸ Prison Sentence and Financial Penalty for Henk S.,” Press information, Rechtbank Alkmaar (Court of Alkmaar) website, <<http://www.rechtspraak.nl>>.” Netherlands Court Imprisons Businessman for Nuclear Exports to Pakistan,” AFP, December 16,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1216102011. The full text of the decisions against Slebos and Filipovic in Dutch are available on the Rechtbank Alkmaar (Court of Alkmaar) website. For Slebos, see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tluitspraak.asp?searchtype=ljn&ljn=AU8250&u_ljn=AU8250>; for Filipovic, see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tluitspraak.asp?searchtype=ljn&ljn=AU8255&u_ljn=AU8255>.

⁹⁹ The full text of the decisions against Slebos and Filipovic in Dutch are available on the Rechtbank Alkmaar (Court of Alkmaar) website. For Slebos, see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tluitspraak.asp?searchtype=ljn&ljn=AU8250&u_ljn=AU8250>; for Filipovic, see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tluitspraak.asp?searchtype=ljn&ljn=AU8255&u_ljn=AU8255>. Mark Hibbs, “Court Needs More Time To Reach Verdict in Case against Slebos,” NuclearFuel, November 21, 2005, pp. 21-22.

¹⁰⁰ “De Nederlandse atoombomb (The Dutch Atom Bomb),” broadcast by “Zembla,” Dutch television network VARA, November 7, 2005.

¹⁰¹ “De Nederlandse atoombomb (The Dutch Atom Bomb),” broadcast by “Zembla,” Dutch television network VARA, November 7, 2005. Jaco Alberts and Karel Knip, “De vriend van een atoomsplion (The Friend of a Nuclear Spy),” NRC Handelsblad (Rotterdam), February 21, 2004, original text available at <<http://www.atoomspionage.com/vriendkahn.htm>>; For English translation see, “Netherlands Article Details Activities of Proliferation Suspect Henk S.,” in FBIS Document EUP20040222000171.

신고했으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⁰² 슬레보스가 파키스탄의 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혐의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당국은 거의 10년 동안 그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슬레보스가 칸 박사에게 통제 물자를 이전하기 시작한지 8년이 지난 1985년에야 비로소 당국은 그를 통제 물자를 허가 없이 칸연구소 (KRL) 에 판매한 혐의로 처벌했다. 이로 인해 슬레보스는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결국 감옥에 가지 않았다.¹⁰³ 그는 20,000길더 (1985년 당시 6,000달러) 의 벌금을 납부했다.

당시 네덜란드 당국이 슬레보스 사건 수사에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 관리들, 특히 루드 루버스 (Ruud Lubbers) 전(前) 총리는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 정부에게, 미국의 정보기관이 향후 밀매망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므로 칸 박사와 관련 인물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련된 전(前) CIA 분석가는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에게 칸 박사에 대한 슬레보스의 이전 행위를 막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증언했다.¹⁰⁴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네덜란드 당국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핵 물질, 기술을 취급하는 수익성 있는 밀매시장이 형성되었고, 적어도 4반세기 (25년) 이상 유지되었다. 슬레보스가 칸 박사와 협력하는데 있어 사법 당국은 거의 방해가 되지 않았고, 1985년과 2005년에 그가 받은 처벌도 매우 경미했다는 사실은, 네덜란드의 수출통제와 범 집행 행태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1985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슬레보스는 칸 박사의 물자 조달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슬레보스는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2005년 12월에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네덜란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을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11월 방송된 네덜란드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슬레보스는 자신이 칸에게 건네준 물품들이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했고, 인도와의 긴장관계에 놓여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십 년간 계속된 칸과의 거래를 통해 수백만 길더를 벌었다고 밝혔다. 슬레보스는 칸 박사와 다른 국가들 간의 거래에 대한 자신의 개입 사실을 부정하면서,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이 수립된 이후로는 칸 박사와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¹⁰⁵ 그러나 법정 기록을 보면, 슬레보스는 칸 박사와 칸연구소 (KRL) 가 리비아, 이란, 북한 등에 관련 물자와 기술을 활발하게 지원하던 중인 2002년까지 칸 박사에게 물자를 공급했다.¹⁰⁶

이미 여러 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슬레보스는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예로, 슬레보스는 파키스탄 산업자동화연구소 (IIA) 로 “피벗 베어링”을 불법 이전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슬레보스가 네덜란드 당국으로부터 그 물품이 네덜란드의 “캐치올”의 규제 대상으로, 수출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 받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⁰⁷ NuclearFuel의 2006년 1월호에 게재된 마크 힙스 (Mark Hibbs) 의 기사에 따르면, 슬레보스는 법정 기록에 기재된 물품 말고도 2001년에 “[CNOR 원자로]의 하부 베어링으로써 금속성분상, 디자인상 명세가 정확히 일치하는 수천 개의 강철 베어링볼 (steel ball bearing) 을 파키스탄 산업자동화연구소로” 이전했다.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슬레보스가 이전한 이 베어링은 파키스탄의 CNOR 디자인에 바탕을 둔 P-1 원심분리기에 사용될 부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핵 프로그램은 1985년 이후로 CNOR 디자인을 우라늄 농축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P-1 원심분리기는 칸 박사가 “이란, 리비아, 북한” 등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디자인이다. [편집자 주: 칸 박사는 1970년대 우라늄농축연구소 (European Nuclear Consortium [URENCO]) 에서 일할 당시 CNOR 디자인의 설계도를 처음 획득하였다.]

재판정은 슬레보스에 대한 고발건이 진행되던 중, 슬레보스의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네덜란드 당국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무실 수색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4년 4월에 이루어진 사무실 수색에서, 국내 정보기관 요원이 네덜란드 사법부 소속의 수사관과 동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수색 영장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재판정은 정보기관 요원이 사무실 수색에 참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슬레보스의 처벌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¹⁰⁸

¹⁰⁵ “De Nederlandse atoombomb (The Dutch Atom Bomb),” broadcast by “Zembla,” Dutch television network VARA, November 7, 2005.

¹⁰⁶ Uitspraak, Rechtbank Alkmaar, Parketnummer: 14.038041-04 (Verdict, Court of Alkmaar, Case number: 14.038041-04), December 16, 2005,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tluitspraak.asp?searchtype=ijn&ijn=AU8250&ijn=AU8250>>.

¹⁰⁷ “Prison Sentence and Financial Penalty for Henk S.,” Press information, Rechtbank Alkmaar (Court of Alkmaar) website, <<http://www.rechtspraak.nl>>. Mark Hibbs, “Warning Sent Too Late To Convict Exporter On Centrifuge Performs,” NuclearFuel, January 16, 2006, pp. 5-6.

¹⁰⁸ Uitspraak, Rechtbank Alkmaar, Parketnummer: 14.038041-04 (Verdict, Court of Alkmaar, Case number: 14.038041-04), December 16, 2005.

¹⁰² “De Nederlandse atoombomb (The Dutch Atom Bomb),” broadcast by “Zembla,” Dutch television network VARA, November 7, 2005.

¹⁰³ “Dutch Businessman Unrepentant About Alleged Nuclear Technology Transfers to Pakistan,” Global Security Newswire, November 7, 2005, <http://www.nti.org/d_newswire/issues/2005_11_7.html>.

¹⁰⁴ “De Nederlandse atoombomb (The Dutch Atom Bomb),” broadcast by “Zembla,” Dutch television network VARA, November 7, 2005.

티너 패밀리 (The Tinner Family)

현재는 수감 중인 한 스위스 일가족 세 명은 칸 박사의 핵 지원망에 통제 물자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005년 가을까지, 티너 (Tinner) 가의 일가족 세 명은 국내 수출통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스위스에 구금되어 있었다.

2004년 10월, 독일 당국은 칸의 밀매망 관련자로서 현재는 폐기된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의 기술자인 우르스 티너 (Urs Tinner) 를 체포했다. 2004년, 말레이시아 경찰이 그가 말레이시아 기업인 SCOPE의 기술 고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티너가 칸 박사의 밀매망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가 포착되었다. SCOPE는 리비아에 선적할 목적으로 우라늄융합 원심분리기 설비를 제작하고 있었다. 티너는 2005년 5월에 독일에서 스위스로 송환되었으며, 현재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수감 중에 있다.¹⁰⁹ 2005년 9월, 스위스 당국은 당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각각 우르스 티너의 아버지와 형제인 프리드리히 티너 (Friedrich Tinner) 와 마르코 티너 (Marco Tinner) 를 체포했다.¹¹⁰ [14] 프리드리히와 마르코의 신원은 체포 당시에는 분명하지 않았으나, 이후 독일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¹¹¹

프리드리히 티너와 마르코 티너는 이전에 핵 밀매망에 연루되었었다. 마르코 티너는 그의 형제인 우르스 티너에게서 넘겨받은 물자를 자신의 회사인 트라코 사 (Traco Company) 를 통해 SCOPE로 공급했다. 이에 더해, 2005년 11월 29일, 터키 당국이 칸 박사의 핵 밀매시장에 연루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은 마르코 티너를 밀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마르코 티너가 (우라늄 융합 원심분리기 베어링에 사용되는) 고리 자석을 리비아로 수출하는데 협력한 터키 기업인 EKA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¹¹²

<http://zoeken.rechtspraak.nl/zoeken/dluitspraak.asp?searchtype=ljn&ljn=AU8250&u_ljn=AU8250>.

¹⁰⁹ Kenley Butler, "How the Abdul Qadeer Khan Network Circumvented Export Control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22-24, <<http://www.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Germany and Switzerland Investigate Suspected Members of Proliferation Network," NIS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4), pp. 24-26, <<http://www.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¹¹⁰ "Switzerland Makes Two More Arrests in Nuclear Export Case," Associated Press, September 10,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¹¹¹ "Haftverlängerung für Friedrich Tinner beantragt" (Extension of Jail Time Requested for Friedrich Tinner), Neue Zürcher Zeitung, November 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Von Bruno Vanoni, "Seco verbietet Ventilexporte nach Pakistan" (Seco Prohibits Valve Export to Pakistan), Tages-Anzeiger, November 2,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¹¹² Turkey a Transit Country in Smuggling Nuclear Parts into Libya," PAO Ankara Turkish Press Summary, December 8, 2005; in FBIS Document, GMP20051212025001.

우르스 티너의 혐의를 밝힌 바 있는 2004년 말레이시아 경찰 보고서는, 그의 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티너가 원심분리기 설비를 두바이를 거쳐 리비아로 환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¹¹³ 프리드리히 티너는 1994년, 우라늄 융합에 사용될 수 있는 벨브를 이라크로 판매한 사건에도 연루된 바 있다.¹¹⁴

라이너 볼메리히 (Rainer Vollmerich)

2005년 11월 24일, 독일 플라흐 (Pullach) 에 거주하는 라이너 볼메리히 (Rainer Vollmerich) 는 통제된 핵 물질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고 파키스탄에 수출한 혐의로 뮌헨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¹¹⁵ 볼메리히는 독일 허가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행위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7년 3개월의 징역형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볼메리히가 그의 회사인 바콤 (Vacom) 을 통해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우라늄 융합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칸 박사와 칸연구소 (KRL) 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¹¹⁶

독일 검찰에 따르면, 볼메리히는 파키스탄의 핵 연구소로 가는 물품을 조달하는데 중개인 역할을 했다. 독일 세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 볼메리히는 특정 물품의 최종용도를 허위 기재하고, 대부분의 경우 최종 목적지를 남아프리카로 기재하는 등 허가 서류를 위조했다.¹¹⁷ 볼메리히의 재판에 출두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에 따르면, 독일의 사업가가 핵 융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물품을 선적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독일 세관은 여전히 이러한 수출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있다.

볼메리히와 다른 독일의 사업가들이 독일의 수출통제시스템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현재 독일 수출통제시스템의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독일 세관원은, 독일의 수출통제 당국은 대개 수출허가서에

¹¹³ "Press Release by Inspector General of Police in Relation To Investigation on the Alleged Production of Components for Libya's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Royal Malaysia Police Official Website, February 20, 2004, <http://www.rmp.gov.my/rmp03/040220scomi_eng.htm>.

¹¹⁴ "Swiss Company Investigated in Iraq A-Bomb Affair," Iraqi Nuclear Abstracts: 1996,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website, <<http://cns.miiis.edu/research/December2005/January2006iraq/iraqu96.htm>>; Supporting source for abstract: Alan George, "Investigation Into A-Bomb Affair," Jane's Intelligence Review and Jane's Sentinel Pointer, January 1997.

¹¹⁵ "German Businessman Sentenced for Supplying Equipment to Pakistan's Nuclear Program," Associated Press, November 2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us.com>>. "German Found Guilty of Supplying Nuclear Weapons Technology to Pakistan," AFP, November 24,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1124102012.

¹¹⁶ "German Found Guilty of Supplying Nuclear Weapons Technology to Pakistan," AFP, November 24,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1124102012. German Investigators Say Illegal Exports to Pakistan Point to 'Gaps' in Controls," Munich Sueddeutsche Zeitung, November 18, 2005, in FBIS EUP20051118086005.

¹¹⁷ German Investigators Say Illegal Exports to Pakistan Point to 'Gaps' in Controls," Munich Sueddeutsche Zeitung, November 18, 2005, in FBIS EUP20051118086005. "German Businessman Suspected of Smuggling Nuclear Material to Pakistan," Focus [weekly news magazine], September 26,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0927086013.

첨부되어 있는 서류들의 정확성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현 시스템 내에서는 허위 내용을 신고한 수출을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¹¹⁸

파키스탄, 피해관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쇄신 힘들어

2004년 9월, 파키스탄은 일본, 미국 등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민감한 물자와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의 새로운 법규는 허가 절차에 있어 행정적 감독의 폭을 넓혔다. 이러한 변화는 칸연구소 (KRL) 와 같은 연구소, 기업 등과 정치적으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활동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규는 수출통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나 기업이 문서보관에 있어 보다 엄격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¹¹⁹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몇몇 국가들, 특히 이란에 핵을 확산하는 등, 그의 활동범위를 넓혀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키스탄은 국제적 비난여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2005년 11월, 이란 정부는 원자력폭탄의 폭발 핵에 관한 청사진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 제출했다. 이란 당국자는 이 자료를 이란 정부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핵 과학자들이 판매를 위한 미끼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칸의 밀매망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료는 농축 천연우라늄과 열화우라늄을 반구형으로 주조 및 가공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담고 있다.¹²⁰ 비록 IAEA는 이 서류에 대해, 반구를 핵폭탄의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를 명기하는 도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지만, 이 자료는 우라늄 가스를 농축 우라늄 금속으로 변환시키고, 반구 형태로 주조하는데 필요한 기본절차를 담고 있다.¹²¹ 그러나 IAEA는 이란이 1987년에 칸의 밀매망으로부터 입수한 다른 관련 문서들에 대해서 주목했다. 해당 문서는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P-1 원심분리기 (파키스탄 최초의 원심분리기 모델) 와 원심분리기 캐스캐이드 (cascade) 제작을 위한 청사진에 관한 것이다. 또한 2000개의 원심분리기와 168개의 기계로 이루어진 6개의 캐스캐이드 (cascade) 를 갖추고 있는 작은 공장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¹²²

¹¹⁸ "German Investigators Say Illegal Exports to Pakistan Point to 'Gaps' in Controls," Munich Sueddeutsche Zeitung, November 18, 2005, in FBIS EUP20051118086005.

¹¹⁹ Shi-chin Lin, "The AQ Khan Revelations and Subsequent Changes to Pakistani Export Controls," Issue Brief,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e3_issues.html>.

¹²⁰ Iran Gives IAEA Suspected Atom Bomb Blueprint," AFP, November 18,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1118102021.

¹²¹ "Diplomats Suggest Iran May Have Handed Over Nuclear Core Plan Accidentally," AFP, November 20, 2005, in FBIS Document EUP20051120102004.

¹²² "South African Businessman, British Arms Dealer Sentenced in U.S. Court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11-12,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칸 박사 (Khan) 의 밀매망은 차치하고서라도, 파키스탄에 근거를 둔 다른 밀매조직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2005년 8월, 남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아셔르 카르니 (Asher Karni) 라는 사업가는 파키스탄 사업가인 후마윤 칸 (Humayun Khan) 과 거래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카르니 (Karni) 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물품을 후미드 칸에게 불법적으로 공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가 공급하려 한 트리거드 스파크 갭 (triggered spark gaps) 과 오실로스코프 (oscilloscopes) 등의 물품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었다.¹²³ 이 사건과 최근 보도된 여타 사건들은 파키스탄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국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통제 물자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출통제체제를 시험하기 위한 불법 거래가 계속되고 있어

칸의 밀매망과 관련된 카르니-후마윤 간의 거래 등 2005년에 보고된 여러 사건들은 통제 물자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로 확산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칸 박사가 이끄는 핵 밀매망이 대부분의 활동을 중지한 반면, 불법거래를 주도하는 기업들과 중개인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비확산 통제체제의 효율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10월, 영국 신문인 *The Guardian* 지는 전 세계 (특히 중동과 남아시아) 에 걸친 360개의 기업이 여러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는 통제 물자의 확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국 정보기관인 MI-5의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¹²⁴ 기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영국의 기업들이 부주의하게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중용도 물자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의 목록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기업들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고, 영국 정부가 해당 목록을 수출허가 승인 여부에 적용할 지도 불분명하다.

The Guardian 지는 2006년 1월 4일자 기사를 통해, 가디언 지가 "유럽연합 정보원 (leading EU intelligence service)" 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정부가

¹²³ "South African Businessman, British Arms Dealer Sentenced in U.S. Court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11-12,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Stephanie Lieggi, "The Case of Asher Karni and Humayun Khan,"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19-22,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¹²⁴ Ian Cobain and Ewen MacAskill, "MI5 Unmasks Covert Arms Programmes," The Guardian, October 8, 2005, <www.guardian.co.uk>.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질의 획득을 위한 밀매망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¹²⁵ 2005년 7월에 작성된 정보기관 보고서는 특히 유럽 기업들로부터의 불법 운송을 주도하는 몇몇 주도적 기업들의 목록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목록은 여러 유럽 국가 정부들이 자국의 산업계와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기업들과 연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해당 주제에 관한 2006년 1월 5일자 *The Guardian* 지의 세 번째 기사는, 1999-2001년 사이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수억 달러 규모의 이중용도 장비-동유럽과 서유럽, 러시아 등의 기업들이 입수한-밀매에 있어 수단이 통로 역할을 했던 사실에 주목했다.¹²⁶

최근에 불법 공급망의 활동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The Guardian* 지의 세 번에 걸친 기사는 정부와 산업계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진행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자의 불법 밀매를 탐지하고 방지하는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민감한 물자의 유통을 막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고, 정부의 투자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에야 완수할 수 있는 일이다. 수출통제 당국 - 특히 밀매망이 자국의 법적 장벽을 빠져나간 적이 있는 국가들 - 은 칸의 밀매망이 사용한 수법들을 분석함으로써 자국 수출통제의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산업계 대표들과 정부 당국은 과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신생독립국가연합(NIS) 내에서 발생한 방사능, 핵, 이중용도 물자 관련사건 요약

2005년에 신생독립국가연합(NIS) 내에서 발생한 몇 건의 방사능, 핵,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들이 보고되었다. 보고된 다수의 사건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방사능원을 발견한 경우로, 어떤 형사상 범법행위는 관련되지 않은 것이었다. 2005년 중에 보고된 24건의 사건들 중, 12건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유기된 방사능원이나 방사능 물질을 저장하도록 설계된 빈 컨테이너를 발견한 경우였다. 또한 적어도 6건이 소위 “더러운 폭탄”으로 불리는 방사능물질 처리장치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RDD]) 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세슘-137과 스트론튬-90에 관련된 것이었다. 모든 사고를 통틀어, 지역 당국은 발견된 물자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실패했고, 저장되어 있던 방사능 물질과 그 소유주도 찾지 못했다. 이 중 세 건의 경우, 세관 검사대에서 방사능 물질이 발각되었으며 형사상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 사건은 산업 시설에서 방사능원을

부적절하게 저장한 경우였다. 나머지 두 사건은 카자흐스탄에서 방사능 고철을 훔치려 한 경우와, 러시아에서 방사능 컨테이너를 고철로 판매하려 한 경우 등이다.

보고된 24건의 사건 중 단 6건에 대해서만 불법 밀매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중 4건은 키르키즈스탄에서 방사능 수은, 러시아에서 열화우라늄과 미확인 방사능물질, 우크라이나에서 우라늄-238 등의 판매 혹은 운송을 기도한 사건이다. 이 중 핵무기의 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239와 같은 무기급 물질과 관련된 사건은 없었다. 나머지 두 사건은 라트비아에서 세미트레이러식 트랙터, 러시아에서 디젤 잠수함 등 이중용도 물자를 적절한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한 경우이다. 2005년 3월 9일에 라트비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라트비아 벤트스플리스 항구의 세관 직원이 벨라루스에서 선적한 약 150만 달러 상당의 “4대의 세미트레이러식 트랙터”를 억류했다. 탱크나 여타 군 장비를 수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해당 트랙터는 선박을 이용해 앙골라로 운송될 예정이었다. 벨라루스인 하주 (Consignor) 는 라트비아의 이전규정에 따라 해당 이중용도 화물이 수출시 요구되는 이전 허가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2005년 4월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러시아 극동인 캄차카의 세관 당국이 패 군장비의 공식 수출업자인 한 러시아 기업이 고철 용도로 중국으로 수출하려 한 두 대의 디젤 잠수함을 압류했다. 수출자는 세관 당국에 잠수함 내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병기를 제거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극동세관이사회 (Far Eastern Customs Directorate) 에 따르면, 해당 잠수함에는 수출자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은 6개의 어뢰 발사관 등 몇 가지 미신고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다.

러시아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전략물자 불법수출 사건의 적발은 허위로 드러났다. 2005년 9월, 노보시비르스크 기계제작공장 (Novosibirsk Instrument-Making Plant [NPZ]) 이 야간투시장비를 불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PN-14K 야간투시경은 이중용도 물품으로써, 반드시 러시아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라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수출논평의 2005년 11월호 5페이지 “러시아 세관이 이중용도 물자의 불법 수출 막아”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그러나 2005년 11월의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 수출 건을 조사한 결과 수출회사가 러시아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노보시비르스크 기계제작공장 (NPZ) 은 2005년 10월에 미국으로의 야간투시경 수출을

¹²⁵ Ian Cobain and Ian Traynor, “Secret Services Say Iran is Trying to Assemble a Nuclear Missile,” *The Guardian*, January 4, 2006, <www.guardian.co.uk>.

¹²⁶ Ian Traynor and Ian Cobain, “Clandestine Nuclear Deals Traced to Sudan,” *The Guardian*, January 5, 2006, <<http://www.guardian.co.uk>>

재개했다.¹²⁷

보고된 사건들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4건 중 14건이 러시아에서 발생하였으며, 우크라이나 (6건), 벨라루스 (1건), 카자흐스탄 (1건), 키르기스스탄 (1건), 라트비아 (1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2005년 9월에 IAEA는, 2003년 6월 그루지아에서 발생한 밀매사건을 목록에 추가했다. 그루지아 국경수비대는 그루지아-아르메니아 국경에서 아르메니아인 한 명을 체포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방사능 물질 몇 박스를 압수했다. 이 사건은 당초 고농축 우라늄 (highly enriched uranium [HEU]) 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IAEA는 최근 보고를 통해, 압수된 물질이 약 170g의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25Kg 중 아주 적은 양) 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물질의 농축 수준, 출처, 최종 목적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003년 그루지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가장 최근의 고농축 우라늄 (HEU) 밀매사건이다.¹²⁸

다음 표는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지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지가 2005년 동안 보도한 사건들과, 몬트리얼 국제대학원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의 비확산연구센터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가 관리하는 NIS 불법 핵 밀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건들, 그리고 2005년 10-11월 사이에 NIS가 보도한 사건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NIS 불법 핵 밀매 데이터베이스는 NIS의 핵 방사능물질 불법밀매 사건 공개보고서들을 등록해 놓은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NIS 밀매 업데이트 페이지 <<http://nti.org/db/nistraff/update.htm>> 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사건은 날짜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방사능 밀매 사건에 관한 보고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 사건들을 사건에 관계된 물품별로 정확히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음 표는 2005년에 보고된 사건들의 양태와 대략의 건수를 알아보는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표에 기재된 기업이나 개인은 아직 실제 범인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일단 체포된 것이다. 다음 표는 해당 사건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¹²⁷ Vozbuzhdeno ugolovnoye delo v otnoshenii generalnogo direktora ZAO 'Kompaniya TsNIIMASH-EKSPORT'" (Criminal Investigation is Launched in Connection with Director General of the Closed Joint Stock Company 'Company TsNIIMASH-Export'), Press Service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Release, November 14, 2005, <<http://www.fsb.ru/press/2005/msg1411-1.html>>.

¹²⁸ Oleg Rubnikovich, "Vozbuzhdeno novoye 'shpionskoye delo'" (A New 'Spy Case' is Launched), Leningradskaya Pravd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www.lenpravda.ru/>>.

표 1: 2005년 신생독립국가연합(NIS) 내에서 일어난 방사능물질 발각, 이중용도 물자의 불법 밀매, 핵물질 관련사건 요약

보고일 Date of Report	사고발생일 Date of Incident	포착 또는 유용된 물질 Material(s) Seized or Diverted	물량 Quantity of Material	발생지역 Reported Origin	제보된 이전지역 Reported Destination	포착된 지역 Location Seized	범인 Reported Perpetrator(s)
2005년 1월 18일	2005년 1월 17일	수산화칼륨과 천연 방사성 뉴클레오 타이드를 포함한 알루미늄 분말	35kg 들이 가방 42 개 분의 수산화칼륨, 50kg 들이 통 11 개 분량의 알루미늄 분말	러시아 피아티고르스크	그루지아	러시아-그루지아국경의 니즈니자라마그 국경	범죄행위 아님
2005년 1월 23일	2005년 1월 22일	세슘-137	세슘-137 을 최대 30g 까지 담은 83kg 들이 컨테이너 6 대	미상, 크라스노페테르코프스크의 브롬 주식회사로 추정	미상	우크라이나 크리메아 크라스노페테르코프스키 지역의 이순 마을	브롬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크라스노페테르코프스키 거주자로 추정
2005년 2월 8일	불명	방사능 고철	4 톤	카자흐스탄 악타우 화학 습식제련 회사	미상	악타우 화학 습식제련공장	카자흐스탄 악타우 거주자 1 명과 우즈베키스탄 카라칼과크스탄 거주자 1 명
2005년 2월 11일	불명	방사능 수은	4 kg	미상	미상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톱목 거주자 2 명
2005년 2월 25일	2005년 2월 24일	열화우라늄	16kg 들이 컨테이너 1 대	미상	미상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의 옥티아브르스키	러시아 타타르스탄에 거주하는 각각 32 세 26 세의 거주자 2 명
2005년 3월 2일	2005년 2월 말	세슘 코발트로 추정되는 방사능물질을 담은 납차 폐 컨테이너	650kg 들이 빈컨테이너 1 대	미상	미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미상
2005년 3월 2일	2005년 3월 1일	우라늄-238	582g	미상	미상	우크라이나 키예프보리스폴 국제공항	신원불명인
2005년 3월 11일	2005년 3월 9일	세미트레이러식 트랙터	4 대	벨라루스	앙골라	라트비아 벤트스폴리스항구	노트롭 벤트스폴리스 운송회사
2005년 3월 29일	2005년 3월 28일	GAMMARID 감마선 방사선 촬영장치 컴포넌츠; 미확인의 방사성 액체	GAMMARID 컴포넌츠 4 대, 방사성 액체 3 리터 컨테이너 1 대	미상	미상	우크라이나 비닛사	미상
2005년 4월 21일	2005년 4월 20일	방사능 고철	3 톤 이상	카자흐스탄	노보시비르스크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오블라스트의 카라숙 세관 검사대	범죄행위 아님
2005년 5월 5일	2005년 4월 말	디젤 잠수함	2 척	캄차카의 한 기업	중국	러시아 페트로파블로브스크-캄차트스키	(폐 군장비의 공식 수출업자인) 한 러시아 기업

2005년 5월 19일	2005년 5월 중순	방사능 컨테이너	35kg	러시아 제레노그라드 인 근의 멘델레예보 주거지역	지역 고철 수집소	러시아 제레노그라드	46세의 러시아 트베르 오블라스트 거주자
2005년 6월 6일	2005년 6월 5일	방사능 금속통	각각 6kg, 16kg 무게 의 금속통 2개	미상	미상	우크라이나 크헤르슨	미확인
2005년 7월 4일	2005년 6월	이트륨과 스트론튬- 90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미확인	미상	미상	우크라이나 크헤르슨 오블라스트 차플린카	미상
2005년 7월 18일	2005년 7월 17일	세슘-137 용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 1대	미상	미상	러시아 쿠르간 오블라스트 사드보예 마을	미상
2005년 8월 9일	2005년 8월 8일	스트론튬 금속판	한 박스	미상	미상	러시아 무르만스크 오블라스트 트리 류치아에 소재한 레베즈 부유 정비부두	미상
2005년 8월 23일	2005년 8월 26일	세슘-137 혹은 스트론튬-90/이트륨- 90 동위체로 추정되는 방사능원	미확인	미상	미상	러시아 사라토프 오블라스트의 타르카니 마을	미상
2005년 9월 28일	미확인	핵원료 막대의 파편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플라스틱 가방	파이프 13개와 10cm 짜리 막대	체르노빌 핵 발전소 (NPP) 의 제 4동으로 추정	미상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 발전소 구내	199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제 4동 에서 발생한 신축 핵연료 5kg 절도 사건 가담자 4인으로 추정
2005년 10월 18 일	2005년 10월 중순	세슘-137 앰플	미확인	미상	미상	벨라루스 보리소프	미상
2005년 11월 5일	미확인	세슘-137 과 프루토늄-239 로 알려짐	캡슐 113개	미상	미상	러시아 바쉬코르토스탄 블라고브레첸 스크에 소재한 전 생화학 기업	미상
2005년 11월 8일	미확인	방사능 금속설비	미확인	러시아 마가단 오블라스트의 야고드노예 마을	러시아 마가 단의 고철수 집소	러시아 마가단의 상업부두	미확인
2005년 11월 18일	2005년 11월 17일	세슘-137 설비	“약간”	러시아 페트로자보드스 크의 (Bread and Food Service)	확인 불가	러시아 페트 로자보드스크 의 전창고	범죄행위 아님
2005년 12월 22일	2005년 12월 22일	미확인의 방사능물질	12kg 가량	조사 중	조사 중	러시아 야로슬라브	야로슬라브와 모스크바 거주자 3명

중국 기업에 이중용도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러시아 스페이스 사 (Russian Space Company) 대표 체포돼

최근 러시아 항공회사 TsNIMASH-Export 사의 대표 이고르 레쉬틴 (Igor Reshetin) 이 민감한 기술을 수출통제 국가인 중국의 한 기업으로 불법 이전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주요 러시아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온 러시아 연방 보안국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에 의해 포착된 일련의 사건 중 하나이다. 이 기사는 레쉬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고, 특히 정부공인 물품분류센터 (Government-accredited Product Classification Centers) 에 대한 전문 검토와 함께 러시아 수출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005년 11월 14일, 러시아 연방 보안국 홍보센터 (Center of Public Relation of the FSB) 는 기관지를 통해 러시아 항공회사 TsNIMASH-Export 사의 대표이자 학자인 52세의 이고르 레쉬틴 (Igor Reshetin) 과 그의 두 동료 - 부대표인 세르게이 트베르도켈로프 (Sergey Tverdokhlebov) 와 부사장 알렉산드로즈킨 (Aleksandr Rozhkin) 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을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hina Precision Machinery Import-Export Corporation [CPMIEC]) - 러시아어로는 Tochnoye Mashin Oyeniye (TOCHMASH) 또는 “정밀기계빌딩”으로 불리는 - 로 불법 이전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연방 보안국은 어떤 이중용도 기술이 이전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세 사람은 또한 분실된 개인 여권이나 위조 신분증 등을 취급하는 주요 기업들의 조직망을 통해 3,000만 루블 (104만 달러) 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¹

세 사람은 횡령 혐의에 대한 형사상 처벌 (러시아 연방 형법 제160조 3부 “유용 또는 횡령”에 의거) 을 받게 되며, 100,000루블에서 500,000루블 (3,500달러에서 17,600달러) 에 달하는 벌금이나 피고들의 1년에서 3년 동안의 연수입 등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5년간 어떠한 경영활동도 할 수 없으며, 특정 직책을 맡는 것도 금지된다. 게다가 해당 형법에 따르면 10,000루블 (350달러) 이상, 또는 피고인의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2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² 레쉬틴은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불법 수출한 혐의 (형법 189조 3항 “대량살상무기, 무기와 군장비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 물질, 장비, 기술, 과학기술 정보와 용역 등의 불법 수출과 운송”에 의거) 와 범죄 조직의 결성에 관련된 혐의도 받고 있다.³[1,2]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 그는 3년에서 7년 사이의 징역형과 100만 루블 (3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피고인의 한 달 임금, 혹은 5년 이상의 또 다른 수입 등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러시아 언론은 레쉬틴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가 벌금과 함께 최고 7년의 징역형을 부과 받게 된다고 전했다.⁴

혐의를 받고 있는 세 사람은 2005년 10월 25일 오전,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들의 집을 방문한 무장한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담당자들에 의해 체포되었다.⁵ TsNIMASH-Export 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세르게이 비지르 (Sergei Vizir) 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그가 집에 없어 체포하지 못했다.⁶ 1월 초 현재, 비지르 (Vizir) 가 체포되었는지 아니면 그가 전(全) 연방 범죄자 수색프로그램 (Nationwide Federal Criminal Search Program) 에 등재된 상태인지 확실하지 않다. 2005년 10월 27일, 모스크바의 레포토보 (Lefortovo) 지역법원은 체포된 세 사람에 대해 레포토보 공판 전 구치센타에 두 달간 구금할 것을 명령했다.⁷

2005년 11월 15일, 러시아 연방 스페이스 에이전시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Roskosmos]) 는 TsNIMASH-Export 사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수사에 연루되지

² Ugolovniy kodeks Rossiiskoy Federatsii (Crimina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Edition of December 28, 2004; web portal Human Rights in Russia, <<http://www.hro.org/docs/rlex/uk/>>.

³ “Vozbuzhdeno ugovnoye delo v otnoshenii generalnogo direktora ZAO ‘Kompaniya TsNIMASH-EKSPORT’” (Criminal Investigation is Launched in Connection with Director General of the Closed Joint Stock Company ‘Company TsNIMASH-Export’), Press Service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Release, November 14, 2005, <<http://www.fsb.ru/press/2005/msg1411-1.html>>.

Oleg Rubnikovich, “Vozbuzhdeno novoye ‘shpionskoyedelo’” (A New ‘Spy Case’ is Launched), Leningradskaya Pravd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www.lenpravda.ru/>>.

⁴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⁵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⁶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⁷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Sergey Minenko, “S kosmicheskim masshtabom” (On a Cosmic Scale),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44 (453), November 18, 2005, <http://nvo.ng.ru/spforces/2005-11-18/7_mashtab.html>.

¹ Vozbuzhdeno ugovnoye delo v otnoshenii generalnogo direktora ZAO ‘Kompaniya TsNIMASH-EKSPORT’” (Criminal Investigation is Launched in Connection with Director General of the Closed Joint Stock Company ‘Company TsNIMASH-Export’), Press Service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s Release, November 14, 2005, <<http://www.fsb.ru/press/2005/msg1411-1.html>>. Oleg Rubnikovich, “Vozbuzhdeno novoye ‘shpionskoyedelo’” (A New ‘Spy Case’ is Launched), Leningradskaya Pravd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www.lenpravda.ru/>>. “Russians Held in China Spy Probe,” BBC News, November 14, 2005, <<http://news.bbc.co.uk/>>. “Russian Company Head Seized on Spy Charges,” Pravda.RU, November 14, 2005, <<http://newsfromrussia.com/>>. “Machine Export Boss Charged with Passing Technologies to China,” RIA Novosti, November 14, 2005, <<http://en.rian.ru/>>.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다.⁸ 그러나 러시아 연방 스페이스 에이전시 (Roskosmos)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TsNIMASH-Export의 모기업 - 연방기업 기계건축 중앙조사연구소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Central Research Institute for Machine Building 또는 TsNIMASH)가 스페이스 에이전시 사의 산업 자산망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으며, 스페이스 에이전시가 수출 회사들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⁹

2005년 11월 14일, 레쉬틴 측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내세운 혐의와 레쉬틴의 체포가 불법적이고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¹⁰ 레쉬틴의 변호사인 아나톨리 야블로코프 (Anatoly Yablokov) 는 이전에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러시아 과학자인 발렌틴 다닐로프 (Valentin Danilov) 와 아나톨리 바킨 (Anatoly Babkin) 을 변호하면서, “해당 수사가 항공 전문가가 아닌 대령 (Colonels) 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의심할 바 없이 불법적인 기술 이전을 위한 범죄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¹¹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의 수사팀은 2003년 12월에 TsNIMASH-Export 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¹² 당시 수사는 오로지 “물자와 기술의 불법수출”과 “대량살상무기, 일반무기, 군 장비 등의 제조”에 기여할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던 레쉬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¹³ 그러나 아나톨리 야블로코프 (Anatoly Yablokov) 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의 수사의 초점은 1996년부터 TsNIMASH-Export 사와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간의 계약서에 맞추어져 있었다.¹⁴ 해당 계약서의 조항들은 TsNIMASH-Export 사가

중국이 유인 우주선 프로그램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델들의 “초음속 상황에서 비대칭 모델들의 항공역학적 진행에 대한 양적 검증”에 관한 보고서를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TsNIMASH-Export 사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을 위한 13개의 기술 보고서를 준비하고 제출했다.¹⁶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레쉬틴은 러시아 내 13개의 과학연구기구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도 했다.¹⁷ 1996년과 2003년 사이에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는 TsNIMASH-Export 사와 다른 러시아 기구들에 1,900만 루블 (661,000달러) 에 달하는 돈을 지불했는데, 이 돈은 중국 정부가 항공역학 분야의 기본 과학연구를 위한 자금으로 할당한 것이었다.¹⁸ 러시아 연방 수사관들은 해당 계약 사항의 이행에 있어, TsNIMASH-Export 사의 경영진이 다른 러시아 기관들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그들에 협력한 다른 러시아 기관들에게 돈을 지불할 명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¹⁹ 수사관들은 경영진들이 자금을 횡령하여 협력 기관들에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²⁰

레쉬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2년 동안, 경제발전부 (Ministry of Economy and Development) 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ussian Academy of Science [RAS]) 의 도움을 받아 TsNIMASH-Export 사가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에 제출한 기술 보고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검토 결과, 그 문서들에 수출허가 신청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²¹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수사관들은 세 번째 전문 보고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으나, 그

⁸ “Tsnimash-Export Not Part of Federal Space Agency.FSA,” RIA Novosti, November 15, 2005, <<http://en.rian.ru/>>.

⁹ “Tsnimash-Export Not Part of Federal Space Agency.FSA,” RIA Novosti, November 15, 2005, <<http://en.rian.ru/>>.“Predpriyatiya vkhodyashchiye v strukturu Roskosmosa” (Enterprises That are Parts of the Structure of the Roskosmos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Russian Federal Space Agency website, <<http://www.federspace.ru/CustomerDoSele.asp?ComTypeID=1>>.

¹⁰ “Lawyers Appeal Arrest of Russian Scientist,”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November 14, 2005, <<http://www.rferl.org/>>.

¹¹ Sergey Minenko, “S kosmicheskim masshtabom” (On a Cosmic Scale),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44 (453), November 18, 2005, <http://nvo.ng.ru/spforces/2005-11-18/7_mashtab.html>.“Court Upholds Arrest of Tsnimash-Export Head,” RIA Novosti, November 23, 2005, <<http://en.rian.ru/>>.

¹²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Sergey Minenko, “S kosmicheskim masshtabom” (On a Cosmic Scale),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44 (453), November 18, 2005, <http://nvo.ng.ru/spforces/2005-11-18/7_mashtab.html>.

¹³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¹⁴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Sergey Minenko, “S kosmicheskim masshtabom” (On a Cosmic Scale),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44 (453), November 18, 2005, <http://nvo.ng.ru/spforces/2005-11-18/7_mashtab.html>.

¹⁵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Sergey Minenko, “S kosmicheskim masshtabom” (On a Cosmic Scale), Nezavisimoye voyennoye obozreniye (Independent Military Review, a supplement to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No. 44 (453), November 18, 2005, <http://nvo.ng.ru/spforces/2005-11-18/7_mashtab.html>.

¹⁶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¹⁷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Darya Pylnova and Dmitriy Shkrylev, “Shpionskiy otkat” (Spy Rollover), Novaya Gazeta online edition, No. 87, November 21, 2005, <<http://2005.novayagazeta.ru/>>.

¹⁸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¹⁹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²⁰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²¹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Darya Pylnova and Dmitriy Shkrylev, “Shpionskiy otkat” (Spy Rollover), Novaya Gazeta online edition, No. 87, November 21, 2005, <<http://2005.novayagazeta.ru/>>.

전에 피고인들이 체포되었다.²² 세 번째 보고서는 상페테르부르그에 위치한 산업개발연구원 (Center for Industry Development Projects) 이 작성하였다. 이 연구원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AS) 와 비슷하며, 수출업자와 세관 직원들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공인 물품분류센터 중 하나이다.²³ [편집자 주: 2003년 1월 당시, 러시아 연방 내에 총 8개의 분류센터가 있었으나, 그 중 오직 두 곳 - 모스크바에 위치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AS) 와 상페테르부르그에 위치한 산업개발연구원 - 만이 통제 물품 전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²⁴ 산업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했다. 한국에 이중용도 기술을 불법 이전한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인 또다른 러시아 과학자인 오스카 카비셰프 (Oskar Kaybyshev)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산업개발연구원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수사결과와 같은 결론을 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²⁵ [편집자 주: 카비셰프 (Kaybyshev) 사건에 관해서는 NIS Export Control Observer 지의 2005년 3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러나 레쉬틴 사건에 있어 그가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에 협력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두 분류센터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AS) 와 산업개발연구원 - 가 왜 모순적인 평가를 내놓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레쉬틴 사건은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한 스파이 사건의 최근 경향에 잘 들어맞는다. 사실 다른 유사한 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러시아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에 협력하는 사건은 다음 표에 정리된 사건들 중 적어도 세 건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양태 중 하나이다. 특히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는 크라스노야르스크 주립기술대학 열물리센터 (Thermal Physics Center) 의 책임자인 러시아 물리학자 발렌틴 다닐로프 (Valentin Danilov) 의 사건에도 연루되었다.²⁷ 2004년 11월, 시베리아 법정은 러시아 상위성에 적용할 용도로 고안된 보안 시스템 관련물자를 중국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에

이전한 혐의로 다닐로프에게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²⁸ [편집자 주: 2005년 6월, 러시아 최고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년 감형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²⁹ 공식적으로 인가된 쌍방계약의 맥락에서도 정보의 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계약은 후에 수사의 초점이 되었다.³⁰

해당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레쉬틴 사건 발생 당시의 러시아 수출통제시스템이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검토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어쨌든 러시아 과학자 사회는 이 사건들이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골칫거리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레쉬틴 사건에 있어 항공역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AS) 의 회원이자 학자인 유리 리조프 (Yuriy Ryzhov) 는 러시아 연방 보안국 (FSB) 에 공개 서한을 보내, 레쉬틴의 전문가적 진실성을 변호하고 당국으로 하여금 그를 당장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³¹ 더욱이, 러시아 산업개발연구원의 전문 검토에 대해 리조프 (Ryzhov) 는 “우리는 비밀 문건들이 중국으로 이전되었다는 부당한 결론을 낸 전문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지적했다.³²

편집자 주: 1980년에 창립된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는 중국항공과학집단공사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CASIC]) 의 자회사이며, 무기 거래에 관련된 중국 내 두 개의 주요한 산업협회 중 하나인 뉴에라그룹 (New Era Group) 의 회원이다.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는 미사일 기술에 특화되어 있으며, M-9/DF-15 와 M-11/DF-11을 포함한 중거리 지대지미사일 M-시리즈의 주요 제조사이다. 미국 정부는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를 “심각한 확산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업에 대해 1990년대 이래 5번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는 1991년 5월과 1993년 8월에, 1992년에 파키스탄으로 M-11 미사일을 이전하는 등의 미사일 확산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며, 2002년에는 이란과의 미사일 관련 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이란으로 C-801/YJ-1 과 C-802/YJ-2 대함순항미사일을 이전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이란과의 불특정 거래 혐의로

²²)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²³) Darya Pylnova and Dmitriy Shkrylev, “Shpionskiy otkat” (Spy Rollover), Novaya Gazeta online edition, No. 87, November 21, 2005, <<http://2005.novayagazeta.ru/>>.

²⁴) “Russia Establishes Classification Centers to Assist Exporter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anuary 2003), p. 3,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²⁵) Darya Pylnova and Dmitriy Shkrylev, “Shpionskiy otkat” (Spy Rollover), Novaya Gazeta online edition, No. 87, November 21, 2005, <<http://2005.novayagazeta.ru/>>.

²⁶) “Russian Scientist Charged with Selling Dual-Use Materials to South Korea,”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p.9-10,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²⁷)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²⁸) 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²⁹) “Verkhovny sud sokratil srok zaklyucheniya fizika Danilova” (The Supreme Court Reduced the Sentence of the Physicist Danilov), Lenta.RU, June 29, 2005, <<http://pda.lenta.ru/>>.

³⁰) Aleksey Gapeyev, “Dvoynnye tekhnologii na strazhe gostayny” (Dual-use Technologies Guard State Secrets), Lenta.RU, November 14, 2005, <<http://lenta.ru/>>. Aleksandr Andryukhin, “Uchenykh arestovali za sotrudnichestvo s Kitayem” (Scientists Were Arrested for Cooperating with China), Izvestiy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izvestia.ru/>>.

³¹) Darya Pylnova and Dmitriy Shkrylev, “Shpionskiy otkat” (Spy Rollover), Novaya Gazeta online edition, No. 87, November 21, 2005, <<http://2005.novayagazeta.ru/>>.

2004년 4월에 제재를 받은 중국 기업에도 포함되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핵위협구상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홈페이지 <<http://www.nti.org/db/china/cpmiec.htm>> 의 정밀기계수출입공사 (CPMIEC) 개요를 참조하십시오.³³

긴밀한 합자회사인 TsNIMASH-Export 사는 국제 로켓 우주기술 시장의 독점권 소유자 (proprietor) - TsNIMASH - 의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되었다. TsNIMASH-Export 사는 50개 이상의 외국 기업과 관계되어 TsNIMASH 사의 법적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TsNIMASH 사뿐만 아니라 다른 러시아 항공회사들을 대신하여 업무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³⁴

³²) Oleg Rubnikovich, "Vozbuzhdeno novoye 'shpionskoye delo'" (A New 'Spy Case' is Launched), Leningradskaya Pravda online edition, November 15, 2005, <<http://www.lenpravda.ru/>>.

³³) "Tsniimash-Export Not Part of Federal Space Agency, FSA," RIA Novosti, November 15, 2005, <<http://en.rian.ru/>>. "China Precision Machinery Import-Export Corporation (CPMIEC)," China Profiles, NTI online Nonproliferation Database, <http://www.nti.org/db/china/cpmiec.htm>. "Other Subsidiaries: China Aerospace Corporation," China Nuclear Forces Guide: Chinese Special Weapons Contractors: Other Subsidiaries,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undated], <http://www.fas.org/nuke/guide/china/contractor/casc_other.htm>. "China's Proliferation Record," Testimony by Gary Milhollin,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and Director, Wisconsin Project on Nuclear Arms Control, before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October 12, 2001, <<http://www.wisconsinproject.org/pubs/testimonies/2001/10-12-01.htm>>. "China's Record for Proliferation Activities," by Paula A. DeSutter, Assistant Secretary for Verification and Compliance,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Commission, July 24, 2003;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Bureau of Verification, Compliance and Verification, <<http://www.state.gov/t/vci/rls/rm/24518.htm>>. "US Arms Control/Nonproliferation Sanctions Against China," China Profiles, NTI online Nonproliferation Database, <<http://www.nti.org/db/china/sanclist.htm>>.

³⁴) "Russians Held in China Spy Probe," BBC News, November 14, 2005, <<http://news.bbc.co.uk/>>. "China's Proliferation Record," Testimony by Gary Milhollin,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and Director, Wisconsin Project on Nuclear Arms Control, before the U.S.-China Security Review Commission, October 12, 2001, <<http://www.wisconsinproject.org/pubs/testimonies/2001/10-12-01.htm>>. Closed Joint Stock Company TsNIMASH-Export website, <<http://www.tse.ru/>>.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Central Research Institute for Machine Building (TsNIMASH) website, <http://www.tsniimash.ru/>.

표 2: 적발된 러시아 과학자 목록

연도	이름(지역)	이력	러시아연방보안국 (FSB) 혐의	처벌
1997	빅토르 쿨리체프 (블라디보스토크)	학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RAS) 회원, 물리학과 교수학 박사	밀매, 스파이 혐의, 기술불법수출	집행유예 4년
1998-2001	발렌틴 이세예프 (모스크바)	경제학 학위취득 희망자, 러시아 외무부의 아시아국가국 직원	반역 혐의-스파이 활동과 한국으로의 기밀정보 유출	강제노동수용소 4년 6개월
1999-2000	블라디미르 소이페르 (블라디보스토크)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 해양학 연구원 대표	기밀문서 취급명령 위반	법원이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의 불법행위 인정
2000-2003	유리 보로스토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 해양학 연구원 직원	밀매, 중국으로의 이중용도 기술 불법 수출	무죄 선고
2000-2003	블라디미르 쉬추로프 (블라디보스토크)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태평양 해양학 연구원 대표	국가 기밀 유출, 밀매, 중국으로의 기술 불법	집행유예 2년, 사면
2000-2004	이고르 수티야진 (모스크바)	역사학 학위취득 희망자, 러시아 과학연구원 북미 연구원 직원	스파이 활동과 국가기밀 유출	강제노동수용소 15년
2001	발레리 코발추크 (첼야빈스크)	발명가, 첼야빈스크 소재 CJSC Efa 수석 엔지니어	기술 불법수출	법원이 추가조사지시
2001-2003	아나톨리 밥킨 (모스크바)	교수, N. E. Bauman 모스크바 주립기술대학 로켓 엔진학부 학장	반역 혐의-스파이 활동, 미국으로 Shkval 미사일 관련 정보 이전	집행유예 8년, 연구활동 금지
2001-2004	발렌틴 다닐로프 (크라스노야르스크)	과학자, 물리학자, 크라스노야르스크 기술대학 학장	반역 혐의-중국의 스파이활동과 사기 혐의	강제노동수용소 13년
2004	올가 트세필로바 (상페테르스부르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사회학 연구원 직원; 방사능으로 오염된 오제르스크의 생활환경에 대해 연구	통제 정보에 대한 접근 기도와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 반역 혐의	러시아 연방 보안국은 이 사건이 절차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고 인정
2003-2005	오스카카이비체프 (우파)	교수,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금소초가 소성문제 오판 연구원 책임자	국가기밀 유출 (증거 부족으로 기각), 남한으로의 이중용도 기술 불법이전, 횡령	계류 중

국제지원프로그램

2005년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통제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지원

지난 한 해 동안, *Observer* 지는 전(前)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포함하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조명해왔다. 일본은 국제적 지원활동에 가장 주도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출통제 개선에 있어서는 주요 지원국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적 비확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인 방안으로써 국내 (domestic) 수출통제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기사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지원활동을 조명한 것이다.

일본은 2005년 한 해 동안, 양국간 협력과 지역협력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내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압둘 카히르 칸 (A.Q. Khan)의 불법 핵 밀매망이 발각되는 등 최근 드러나고 있는 확산시도에 대항하여,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부는 지역 내의 국가들이 효과적인 수출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왔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은 모든 국가들이 효과적인 국가 수출통제를 구축하고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에게 수출통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이행 경험이나 결의안의 조항을 이행할 수단이 미흡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의 탄탄한 비확산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국가이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의 최근 외국 지원은 2003년 일본-동아시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간 행동계획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수출통제의 필요성을 깨달은 ASEAN 국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 보다 최근인 2005년 12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일본-ASEAN 간 정상회담에서는 2003년 행동계획의 달성과, 지역 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과 ASEAN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공동성명 (Joint Statement) 이 채택되었다.²

일본은 또한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서 수출통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일본이 세미나를 개최한 국가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등 ASEAN 4개국과, 파키스탄, 한국 등이다. [편집자 주: 일본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서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비확산 부문에서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은 2005년 2월 9일에 도쿄에서 제 2회 아시아고위 비확산대화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ASTOP]) 를 개최했다.³ [편집자 주: 아시아고위 비확산대화 (ASTOP)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2003년 11월에 처음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는 미얀마를 포함한 ASEAN 전 국가와 한국, 미국 등이 참가하였다. 각국의 고위급 간부 (장관급) 들은 아시아의 수출통제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칸 (A.Q. Khan) 의 핵 밀매망을 포함한 지역내 확산위협 문제도 제기되었다. 참가국들은 IAEA의 안전조치 (Safeguards) 시스템과 핵공급그룹 (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헤이그행동규범 (HCOC) 등의 국제 수출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ASTOP 참가국들은 또한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의 이행상 문제점과 법적 논점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각국 대표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통제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통제능력 배양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아시아의 수출통제시스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각종 장애물과 난관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일본 정부는 ASEAN 국가들의 수출통제를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불법밀매망의 최근 경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환적지로 이용하는 필수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내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 12일, 일본국제협력기구 (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 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일본-캄보디아 양국간 세미나를 후원했다.⁴ 이 세미나의 일본 대표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METI) 과 일본국제협력기구 (JICA) 의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캄보디아 대표단으로는 캄보디아 외부,

²) "Joint Statement of Ninth ASEAN-Japan Summit," MOFA website, December, 13, 2005,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asean/conference/joint0512.html>>

³) "The Second Asian Senior-level Talks on Non-Proliferation," MOFA website, February 10, 2005, <http://www.mofa.go.jp/mofaj/gaiko/fukaku_j/astop2_0502gh.html>.

⁴) "Export Control Seminar in Cambodia,"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website, January 5, 2005, <<http://www.meti.go.jp/press/20050105001/050105yusutsu.pdf>>

¹) "The Japan-ASEAN Plan of Action,"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website, December 2003,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asean/year2003/summit/action.pdf>>.

국제협력, 통상부 (Ministry of Economy, International Cooperation, Trade) 와 같이 수출통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의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이 양국간 세미나는 2005년 2월 7일에 라오스 (JICA 후원), 2005년 5월 29일에는 브루나이로 (METI 후원) 이어졌다.⁵ 2005년 5월 30-31일, 일본 경제산업성 (METI) 과 싱가포르 세관은 싱가포르 수출조사시스템의 정비와 민간부문의 수출통제 역량 배양과 이행능력 개선을 위한 수출통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⁶ [편집자 주: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4년, 수출통제시스템의 강화를 위한 상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⁷

일본-한국 간 수출통제 공동세미나가 2005년 2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는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 [CISTEC]) 와 한국의 산업자원부 (MOCIE) 가 공동으로 후원했다.⁸ [편집자 주: 비정부기관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CISTEC) 는 정부기관과 함께 일본경제의 일관된 수출통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지침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단체이다. CISTEC 는 국제 수출통제법규의 조화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미나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METI) 과 한국 산업자원부 (MOCIE) 는 기업들이 한국의 수출통제시스템과, 내부이행프로그램 (ICPs) 과 같은 민간 기업의 자체적 통제조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장려했다. 일본과 한국의 민간 기업 대표들은 수출통제 분야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보다 높이는데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CISTEC) 와 한국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Strategic Trade Information Center [STIC]) 는 일본 기업들이 이행하고 있는 자발적인 내부이행프로그램 (ICP) 에 대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CISTEC) 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또 한 차례의 세미나를 2005년 11월에 서울에서 가졌다.⁹

남아시아의 수출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일본 경제산업성 (METI) 은 2005년 5월 9일 이슬라라마드에서 파키스탄과 공동으로 수출통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칸 (A.Q. Khan) 박사의 핵 밀매망이 발각된 이후, 일본은 파키스탄이 수출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독려해 왔었다. 그 결과로,

파키스탄은 2004년 10월에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수출통제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¹⁰ 파키스탄의 수출통제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상호 노력이 일환으로, 파키스탄 정부는 일본의 최신 수출통제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2005년 1월 21일-2월 4일 일정으로 일본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다.¹¹ [편집자 주: 2004년 9월에 도입된 파키스탄의 새로운 수출통제 법규는 일본의 지원을 바탕으로 정비되었다. 파키스탄의 최신 법규는 파키스탄 수출통제시스템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파키스탄 정부가 해당 법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원조하고 있다.]

국제공급국체제

2005년 국제수출통제체제 개관

2005년, 국제 불법 밀매망이 발각된 이후에 몇몇 비확산 체제들은 국제적인 수출통제를 보강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 지침들을 도입했다. 몇몇 비확산 체제들은 새로운 회원국을 가입시키거나, 거부하거나, 가입 준비 절차를 밟았다. 아래는 호주그룹 (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바세나르 협약 (WA), 핵공급국그룹 (NSG),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등에 일어난 2005년 주요 사건들을 요약한 것이다.

호주그룹 (AG)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은 2005년 4월 18-21일 사이에 호주의 시드니에서 총회를 가졌다. 이 총회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승인하고, 안전한 정보교환망 (Secure Information Exchange Network) 의 구축을 발표했으며, 통제리스트를 재정비했다.

설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된 호주그룹의 2005년 총회는, 1985년 호주그룹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보다 중요한 일은, 호주그룹이 우크라이나를 39번째 회원국으로 승인한 것이다. 2005년 4월에 이루어진 언론 발표를 통해, 호주그룹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화학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가입이 “호주그룹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회원국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전했다.

⁵) “Export Control Seminar in Laos,” METI Website, February 4, 2005, <<http://www.meti.go.jp/press/20050204006/050204laos.pdf>> “Brunei Welcomes Japanese Export Control Experts,”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5), pp. 6-7. <<http://www.cns.mii.edu/pubs/observer/asian/index.htm>>.

⁶) “Japan-Singapore Joint Export Control Seminar,” METI website, May 27, 2005, <<http://www.meti.go.jp/press/20050527003/yushutukannriseмина-set.pdf>>.

⁷) “Bilateral Export Contro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ingapor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June/July 2004), pp.5-6, <<http://www.cns.mii.edu/pubs/observer/asian/index.htm>>.

⁸) “2005 Japan-Korea Export Control Seminar,” Center for Information on Security Trade Control (CISTEC) website, March 10, 2005, <http://www.cistec.or.jp/english/f_intlcoop/koreajapan2005/koreajapan2005.html>.

⁹) Export Control Seminar in South Korea, CISTEC website, December 9, 2005, <http://www.cistec.or.jp/open/service/intlcoop/o_koreaicp2005/index.html>.

¹⁰) Fifteen Countries and Regions attended the 12th Annual Asia Pacific Export Control Seminar,” Asia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November 2004), p. 20, <<http://www.cns.mii.edu/pubs/observer/asian/index.htm>>.

[편집자 주: 우크라이나는 오데사의 메치니코프 반전염병 과학연구소 (Mechnikov Anti-plague Scientific and Research Institute) 와 르비브에 있는 국립역학위생연구소 (State Research Institute of Epidemiology and Hygiene) 등 전(前) 소비에트 연방의 몇몇 생물학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졸로토노샤 (체르카시 오블라스트), 오차키브 (드네프르 강 어귀와 흑해 연안), 파스티브 (키예프 오블라스트) 등에 위치한 화학무기 비축시설 등 몇몇 화학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1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보리스 옐친 (Boris Yeltsin) 은 전(前) 소비에트 연방의 모든 화학무기를 러시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핵위협구상 (Nuclear Threat Initiative [NTI]) 의 웹사이트 <http://www.nti.org/e_research/profiles/Ukraine/index.html> 에서 우크라이나 소개란을 참조하시오.]

호주그룹의 총회 시작에 앞서 가진 연설에서, 이스라엘 대표는 화학, 생명공학 물자의 수출 관리에 있어 호주그룹의 수출통제 지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05년 총회에서는 또한 호주그룹의 정보시스템 구축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호주그룹의 정보시스템은 현재 호주그룹 회원국 간에 수출허가신청 거부사례 (denied export license applications) 에 대한 정보와 기타 수출통제 관련 정보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전자사소통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과학자인 칸 (A.Q. Khan) 의 핵확산 조직이 발각됨에 따라, 호주그룹 총회 참가자들은 화학, 생명공학 물자를 포함한 민감한 물자의 거래의 중개 행위 (brokering) 에 대한 통제를 강제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호주그룹 회원들은 전염성 화학 병원균을 살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특정 타입의 분무, 살포 설비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물자들을 호주그룹의 통제목록에 추가하는데 합의했다.¹²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005년에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에 8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여, 2006년 1월 현재 총 가입국 수는 175개이다. 캄보디아와 부탄, 온두라스, 콩고민주공화국 (DRC), 그레나다, 나우에, 안티과&바부다, 바누아투 (Vanuata) 등은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의 비준 협정서를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편집자 주: 각국은 다음의 날짜에 화학무기협약 (CWC) 비준 협정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 2005년 4월 21일 (나우에), 2005년 6월 3일 (그레나다), 2005년 7월 19일 (캄보디아), 2005년 8월 18일 (부탄), 2005년 8월 29일 (온두라스), 2005년 8월 29일 (안티과 & 바부다), 2005년 9월 16일 (바누아투), 2005년 10월 12일 (콩고)] 화학무기협약의 조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위의 국가들은 비준 협정서를 기탁하고 30일 후에 화학무기협약 (CWC) 과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¹³

또한, 향후 이라크의 CWC 가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9명의 이라크 정부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CWC 집행 워크숍이 2005년 7월 6-9일 사이에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당 워크숍은 이라크 정부 관리들에게 CWC 가입 후에 이라크가 지게 되는 의무사항을 소개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며, 일본 정부가 후원하였다.¹⁴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는 또한 화학무기의 변화에 발맞추어 OPCW 규정을 대폭 개정했다. 2005년 7월 29일, 화학무기협약 (CWC) 검증 부속서 (Verification Annex) 의 제 5부 (5조 4절에 근거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폐기와 그 검증 - 당 협약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전환 Conversion of Chemical Weapons Production Facilities [CWPT])의 개정안이 발효되었으며, 당 개정은 화학무기협약 (CWC) 제 15조 (개정) 와 수탁 공고 (Depositary Notification) C.N.610.2005 TREATIES-4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해당 개정은 2004년 11월 30일에 개최된 OPCW 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States Parties [CSP]) 에서 CWC 회원국들이 전(前) 화학무기생산시설 (CWPFs) 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의된 것이다. 리비아는 당초 자국에 있는 두 개의 전(前) 화학무기생산시설 (CWPF) 을 제약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을 요청했다. 당 개정이 있기 전에, CWC 회원국들은 CWC 규정의 제 5부 72항에 따라, 2003년 4월 29일까지, 혹은 CWC에 가입한 후 6년 안에 그들의 모든 화학무기시설을 전환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편집자 주: CWC는 1997년 4월 29일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리비아가 2004년 1월에 CWC에 가입하고 같은 해 11월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리비아 정부는 앞서 말한 기한을 맞출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당사국 총회를 통해

¹¹ "Pakistan Delegation Visits Japan to Study Export Control System," MOFA's website, January 28, 2005, <http://www.mofa.go.jp/mofaj/press/release/17/rls_0128a.html>.

¹² "Australia Group's Plenary Meeting Marks the Organization's 20th Anniversary; Dual-Use Biological Equipment Control List Expanded,"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pp. 7-8,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er, (May 2005), pp. 7-8,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2] "2005 Australia Group Plenary," Media Release, April 2005; Australia Group website, <http://www.australiagroup.net/en/releases/press_2005.htm>.

¹³ "Five More States Ratify the CWC,"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9-10, <<http://cns.miiis.edu/pubs/observe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ecomes State Party to the CWC,"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0-11, <<http://cns.miiis.edu/pubs/observer>>. Press Releases 2005; OPCW website, <http://www.opcw.org/html/global/press_releases/2005/pr_arch_2005_mainframe.html>.

¹⁴ "Iraqi Officials Trained in CWC Implementation at OPCW Headquarter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 9, <<http://cns.miiis.edu/pubs/observer>>.

회원국들은 리비아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리비아는 제 5부의 개정안이 발효된 후 3년 안에 랍타 (Rabta) 의 모든 화학무기시설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으로 CWC 협약 제 72항에 새로운 문항 (72bis) 이 추가되었다. 새로 추가된 문항은 “72항에서 규정된 6년간의 전환 기간 이후에 당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당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무기생산시설을 전환하기 위한 요청을 할 경우, 집행위원회가 이어지는 두 번째 정기회의를 통해 이행 기한을 정한다.” 는 내용이다. 당사국총회 (CSP) 는 전환 요청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고, “완전한 시설 전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다. 새로이 추가된 문항은 또한 “당사국이 CWC에 가입한지 6년 내에, 가능한 한 빨리” 시설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리비아가 늦어도 2010년까지 랍타의 화학무기 생산시설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¹⁵

2005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나이지리아 대통령이자 현 아프리카 연합 (Africa Union [AU]) 의장인 올루세군 오바산조 (Olusegun Obasanjo) 이 2005년 6월 28일,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를 방문한 것이다. 방문 기간 동안, 올루세군 오바산조는 OPCW 사무총장인 로헬리오 피르터 (Rogelio Pfitter) 를 만나고 제 41차 집행위원회에서 연설했다. 오바산조는 그의 연설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이 OPCW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화학무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프리카 연합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오바산조는 화학무기 시설이 폐기되는 속도가 느린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바산조는 또한 아프리카 연합이 OPCW와 CWC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02년 3월에 수단의 하르툼에서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들이 아프리카를 비화학무기 지역 (CW-Free Zone) 으로 선언한 사실을 주지시켰다. 오바산조는 OPCW 지도자들에게 아프리카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강권했다. 나이지리아와 OPCW 간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제 3차 아프리카 지역 회의는 2005년 10월 20-21일 사이에 나이지리아의 수도인 아부자에서 개최되었다.¹⁶

OPCW는 유럽연합 (EU) 의 후원으로 2005년 10월 4-5일,

¹⁵ “Conversion Provisions of CWC Modified,”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rch 2005), p. 7,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The full 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OPCW website, <www.opcw.org>.

¹⁶ “Nigerian President Calls on OPCW to Open a Regional Office in Africa,”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10-11, <<http://cns.miiis.edu/pubs/observer>>.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Becomes State Party to the CWC,”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0-11, <<http://cns.miiis.edu/pubs/observer>>. OPCW Past Activities; OPCW website, <http://www.opcw.org/html/global/past_events.html>.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학물자 운송체제 이행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세관 당국 워크샵 (Workshop for Customs Authorities on Technical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hemicals Transfer Regime) 을 개최했다. 워크샵에는 20개 이상의 회원국과 두 개의 국제기구 - 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UNEP]) 과 세계세관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 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샵은 각국의 세관 당국에, CWC 하에서 통제되는 화학물자의 운송 감시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이행 방법과 관련된 특정 이슈들에 대해 발표하고, 각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이 통제 화학물자의 운송을 다루는 데 있어 OPCW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¹⁷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2005년 9월 12-16일 사이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 20회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총회에서, 참가자들은 국제 테러리즘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 하에서 대량살상무기 운송시스템의 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국제안보환경의 발전에 부응하여,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회원국들은 MTCR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부속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MTCR에 대한 중국의 두 번째 가입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유는 중국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약속이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¹⁸ (2005년 중국의 수출통제 이행에 대한 추가정보는 이번 호 7페이지의 “중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 기사를 참조하시오.)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범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HCOC]) 조인국들은 2005년 1월 2-3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필리핀을 의장국으로 한 세 번째 정례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탄도미사일과 우주선의 사전 발사예고와 연례 신고 등 신뢰 형성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중동 등을 상대로 한 외부활동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¹⁹

바세나르 협약(WA)

¹⁷ “OPCW Hosts Workshop for Customs Authorities on CWC Implementatio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p. 16-17, <<http://cns.miiis.edu/pubs/observer>>.

¹⁸ “Plenary Meeting of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adrid, Spain, 12-16 September 2005,” MTCR Press Release; MTCR website, <<http://www.mtcr.info/english/press/madrid.html>>.

¹⁹ “The 4th Regular Conference of Subscribing States of the HCOC was held in Vienna on June 2-3, 2005,” Press Release, The Austrian Foreign Ministry website, <http://www.bmaa.gv.at/view.php3?f_id=54&LNG=en&version=>>.

2005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타, 슬로베니아 등이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WA]) 의 새로운 가입국이 되었다. 이 나라들은 2005년 12월 13-14일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바세나르 협약의 11번째 총회에 참석했으며, 바세나르 협약에 가입한 최초의 아프리카 국가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회의 의제는 테러리스트들의 군 물자와 이중용도 물자 획득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WA 회원국들은 “전과방해 장비와 무인항공기 등 테러리스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물자를 통제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큰 폭의 수출통제 목록 개정에 합의했다.²⁰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WA 회원국들이 앞으로 통제물자의 수출 시에 필수서류로 요구하게 되는 최종용도 보증서 (End-use Assurances) 의 예시 목록 (Indicative List) 을 승인하고 공식 발표했다.²¹

핵공급국그룹(NSG)

2005년 7월 15일, 크로아티아는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에 공식 가입하여 통산 45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부터 몇 주 전인 2005년 6월 23-24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 15회 연례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각국의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도입했다. 세 가지 방안은 (1) IAEA 안전조치 협정 (Safeguards Agreement)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로의 핵 관련 물자 이전 일체 중단, (2) IAEA가 특정 국가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 안전조치 (Fall-back Safeguards) 개발, (3) 핵물질, 장비, 기술 등의 공급에 관한 표준과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의 취급 시 고려해야 주요 요소로써 효과적인 수출통제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고무할 만한 새로운 지침 (Guideline) 의 수립 등이다.²²

2005년 4월 11일, 당시 핵공급국그룹 (NSG) 의장이었던 스웨덴의 리차드 에크월 (Richard Ekwall) 과 현 의장인 노르웨이의 로알드 나에스 (Roald Naess) 가 파키스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파키스탄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동안, NSG 대표들은 파키스탄 외무부의 고위급 간부들을 만나 효과적인 수출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취한 조치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NSG 대표단과 파키스탄 정부

관리가 공식 회담을 가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파키스탄 관리들은 NSG가 파키스탄의 핵 역제력을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인정해 준다면, 파키스탄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 NSG 가입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G 대표단의 방문에 앞서 파키스탄의 관리들이 NSG 체계에 가입하는데 대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파키스탄에 도착하기도 전에, NSG 대표단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편집자 주: 어떤 국가가 NSG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파키스탄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많은 NSG 가입국들이 파키스탄을 잠재적 핵 확산국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파키스탄이 가까운 시일 내에 NSG에 가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²³

금수 및 제재 조치

미국의 이란 비확산법 (INA) 개정돼

2005년 11월 8일, 미국 상원의원인 존 킬 (Jon Kyl - 애리조나 공화당) 과 러셀 페인골드 (Russel Feingold - 위스콘신 민주당) 는 이란이 생물학, 화학 무기 및 핵무기, 그리고 관련 운송시스템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비확산 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입안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2005 이란 비확산 이행법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으로도 불리는 상원법안 1976 (Bill S) 에 근거해 2000 이란 비확산법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INA]) 이 (1)대통령에게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제재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기권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명분 요구 (3)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의 모기업에게까지 처벌 범위 확대 (4) 제재 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투자, 개인 금융 거래 등을 금지하는 등 제재의 영향력 확대 등을 골자로 하여 개정된다.²⁴ 킬-페인골드 (Kyl-Feingold) 법안은 현재 미국 상원 외무관계위원회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에 회부된 상태이다.

이와 별개로, 2005년 11월 22일에는 이란 비확산법 (INA) 이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Iran-Syria Nonproliferation Act [ISNA]) 으로 변경되어, 이란뿐만 아니라 시리아도 대상국에 포함되었다.²⁵ 따라서, 킬-페인골드 (Kyl-Feingold) 법안이 통과될

²⁰ “Statement by the Plenary Chair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ublic Statement, June 29, 2005; Wassenaar Arrangement website,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2005_newstates.html>.

²¹ “Statement by the Plenary Chair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Public Statement, June 29, 2005; Wassenaar Arrangement website,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2005_newstates.html>.” “2005 Plenary Meeting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Public Statement, December 14, 2005; Wassenaar Arrangement website,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public131205.html>>.

²² “Nuclear Suppliers Group Adopts Three Measures to Strengthen Nonproliferation Regim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ly 2005), p.4,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²³ “NSG Officials Visit Pakistan; Islamabad’s Membership Not Possibl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5), pp. 7-8,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²⁴ “Kyl, Feingold Introduce Bill to Strengthen Nuclear Nonproliferation Efforts RE: Iran,” Congressional Press Releases,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²⁵ William Huntington, “Congress Amends Iran Nonproliferation Act,” Arms Control Today, December 2005, <<http://www.armscontrol.org>>.

경우 시리아도 적용 대상이 된다.²⁶

상원의회에서 이란 비확산 이행법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페인골드 (Feingold) 상원의원은 이란 비확산법 (현재의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이 “가장 악명 높은 위반자들에 집중함으로써 범죄자들을 골라냈으며 ... 정부, 기업, 개인 등이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이란 비확산법 (현재의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을 강화할 때”이며, “현재의 처벌은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다.²⁷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ISNA) 이 개정된다고 상정하면, 킬 (Kyl) 과 페인골드 (Feingold) 가 입안한 이란-시리아 비확산 이행법에 따라 특히 ISNA의 3절과 4절이 개정될 것이다. 3조 (a)항 (subsection a) 은 현재 “대통령은 위반 활동이 확인된 각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 명문화된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⁸ 법률 개정안에 따라 여러 하위 조항의 내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먼저, 위반자에 대해 “대통령이 관련 제재를 가하게” 되며 처벌 부과가 의무화된다. 둘째로, 킬-페인골드 법안은 각 제재가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과되도록 강제할 것이므로, 처벌 기간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²⁹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3조 3항의 세 번째 변화이며, 잠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변화 내용은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 직원과 그 후계자들, 하위 부서, 자회사 등의 전체 회사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일반 사기업)”에 대해 제재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³⁰ 위스콘신 핵무기통제 프로젝트 (Wisconsin Project on Nuclear Arms Control) 의 개리 밀홀린 (Gary Milhollin) 은 이처럼 제재를 받은 기업의 모기업에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제재 정책의 “큰 허점”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경영자 단체들은 이 조항이 잠정적으로 무역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³¹

네 번째로, 새로운 입법안은 이란-시리아 비확산법 (ISNA) 3조의 “특정한 혹은 모든 수단” 이라는 문구에서 “특정한 혹은 모든”이라는 어구를 약화시킴으로써, 2005 이란 비확산 이행법에 의해 세 가지 처벌내용이 추가된 (b)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ISNA는 제재를 받은 기업이 무기 수출과 이중용도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킬-페인골드 법안은 이러한 규정의 영향 범위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확장시키고 있다. 먼저, 3조 (b)항에 “제재를 받은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업체와 그 자회사, 모회사 등에 미국인이 새로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4)절이 추가된다.³² [5] 둘째로, 새로 추가되는 (5)절은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인이” 제재를 받은 기업과 그 자회사, 모회사 등에 모든 종류의 인가, 용자, 또는 거래 보증을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다. 세 번째로, “미국 정부의 어떤 부서, 기관, 대행 기관 등도 제재를 받은 기업과 그 자회사, 모회사 등에 모든 종류의 신용 거래, 신용 보증, 인가, 또는 여타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6)절이 추가된다.³³

2005 이란 비확산 이행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개인에게 부과된 제재 이행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ISNA의 제 4조를 개정하게 된다. 현재의 ISNA 하에서는, 이것이 기밀문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³⁴ 그러나 개정 법안은 “변호 문서 (written justification) 는 비 기밀문서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기밀 부속서를 포함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³⁵ 이 변호 문서의 내용에 있어 ISNA 개정안은 (1) 제재 보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름과 주소 (2) 잠재적 제재 사유가 된 위반행위에 관계된 특정 물품, 용역, 기술 등의 목록 (3) 문제의 물품의 수령인 등을 필수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는 이 변호문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하고 15일 안에 하원 국제관계상임위원회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와 상원 외무관계위원회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에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³⁶

상원의원인 페인골드 (Feingold) 는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등이

²⁶) “Statements on Introduced Bills and Joint Resolutions,” Congressional Record, Section 40, November 8, 2005,

<<http://www.govtrack.us/congress/record.xpd?id=10920051108-40>>.

²⁷) “Statements on Introduced Bills and Joint Resolutions,” Congressional Record, Section 40, November 8, 2005,

<<http://www.govtrack.us/congress/record.xpd?id=10920051108-40>>.

²⁸)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H.R. 1883), 106th Congress, January 24, 2000.

²⁹)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³⁰)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³¹) Gary Milhollin, Testimony before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rch 10, 2005, <<http://www.uscc.gov>>. Matthew Godsey and Gary

Milhollin, “A Shell Game in the Arms Race,” New York Times, February 2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³²)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³³)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³⁴) Iran Nonproliferation Act of 2000 (H.R. 1883), 106th Congress, January 24, 2000.

³⁵)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³⁶) Iran Nonproliferation Enforcement Act of 2005, S 1976 IS, Introduced 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30 the U.S. Senate November 8, 2005, <<http://thomas.loc.gov>>.

이란을 계속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법안이 “확산자들을 제재하기 위해 축적된 모든 제재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킬 (Kyl) 상원의원은 “이스라엘이 지도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이란 대통령의 최근 언급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란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이 미국의 의무이며, 이는 단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6자 회담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북한기업에 제재조치 내려

2005년은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6자 회담의 전개에 있어 복잡한 한 해였다. 제 4차 6자 회담이 결과로, 2005년 9월에 참가국들이 “공동 문건 (Agreed Principles)”을 채택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라는 최종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에 끝난 제 4차 6자 회담 이후, 각 참가국들이 “공동 문건”에 대해 서로 대비되는 해석들을 내놓고 있어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건들, 특히 미국 정부가 여러 북한 기업들에게 제재 조치를 내린 사건은 양국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 다자간 협상 (6자 회담) 의 재개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005년 10월 21일, 미국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는 행정명령 13382호 (E.O. 13382) 에 따라, 8개의 북한 기업을 미국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송수단의 확산자로 지목하여 처벌했다.³⁷ 2005년 6월 29일에 발표된 행정명령 13382호에 준하여, 해당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되고,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이 제재 조치는 재무부와 국무부 장관이 제재를 해제하기 전까지 유지된다.³⁸ 이에 앞선 2005년 6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 13382호의 부속서에 의거하여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이 관리하는 8개의 기업을 처벌한 바 있다.

2005년 10월에 제재조치를 받은 북한 기업은 혜성 무역회사 (Hesong Trading Company), 도성 기술무역회사 (Tosong Technology Trading Company), 고려 복합장비수입회사 (Korea Complex Equipment Import Corporation), 고려 국제 화학 합작투자회사 (Korea International Chemical Joint Venture Company), 고려 광성 무역회사 (Korea Kwangsong Trading Corporation), 고려 부강 무역회사 (Korea Pugang Trading Corporation), 고려 룡광 무역회사 (Korea Ryongwang Trading Corporation), 고려 련하 기계 합작투자회사 (Korea Ryonha Joint Venture Corporation) 등이다.³⁹ 이 8개 기업의 모기업인 두 회사는 이미 2005년 6월에 행정명령 13382호의 부속서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두 모기업은 고려 채광개발회사 (Korea Mining Development Corporation) (혜성 무역회사와 도성 기술무역회사의 모기업) 와 고려 련봉 총회사 (Korea Ryonbong General Corporation) (나머지 6개 회사의 모기업) 등이다.⁴⁰

북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단행되기 한 달 전에 미국 정부는 미국 애국자 법 (Patriot Act) 의 311절에 근거하여, 북한의 달러 위조 등 여타 불법 행위를 후원한 혐의로 마카오의 Delta Asia 은행 (Banco Delta Asia) 에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⁴¹

북한 당국자는 북한 기업에 대한 여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미국 정부가 해당 기업들의 금융거래를 봉쇄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기획된 “중상모략”이라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⁴² 이에 더해, 6자 회담의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Kim Kye-Gwan) 은 미국 정부가 이들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³⁹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Press Room, Department of Treasury, October 21, 2005, JS2984,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Jeannine Aversa, “Bush Administration Moves to Tighten Clamps on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Associated Press, October 2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⁰ “U.S. Adds 8 More N. Korea Entities to WMD Sanctions List,” Japan Economic Newswire, October 2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¹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Press Room, Department of Treasury, October 21, 2005, JS2984,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Executive Order 13382.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and Their Supporters,”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July 1, 2005, Vol. 70, No. 126,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whwmdceo.pdf>>. Jeannine Aversa, “Bush Administration Moves to Tighten Clamps on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Associated Press, October 2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² “U.S. Adds 8 More N. Korea Entities to WMD Sanctions List,” Japan Economic Newswire, October 2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Treasury Designates Banco Delta Asia as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under USA PATRIOT Act,” Press Room, Department of Treasury, September 15, 2005, JS-2720,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⁴³ “U.S. Slap Against Bank Stuns Foreign Business in N. Korea,” Japan Economic Newswire, September 19,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Chos.nwoemus.ng taeby.nin migug’i ‘mayak, hwa’p’ewijos.I’ moryanghaeng’wir.I tanjoe” (Foreign Ministry Spokesman: U.S. ‘Drug, Counterfeit Currency Propaganda’ Efforts Condemned), Korean Central News Agency, October 18, 2005, <<http://www.kcna.co.jp>>.

³⁷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Press Room, Department of Treasury, October 21, 2005, JS2984,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³⁸ “Executive Order 13382.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and Their Supporters,”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July 1, 2005, Vol. 70, No. 126,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whwmdceo.pdf>>. Jeannine Aversa, “Bush Administration Moves to Tighten Clamps on Eight North Korean Companies,” Associated Press, October 21,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³⁹ “Treasury Targets North Korean Entities for Supporting WMD Proliferation,” Press Room, Department of Treasury, October 21, 2005, JS2984, <<http://www.treas.gov/press/releases/js2984.htm>>. “Executive Order 13382. Blocking Property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and Their Supporters,” Presidential Documents, Federal Register, July 1, 2005, Vol. 70, No. 126, <<http://www.treas.gov/offices/enforcement/ofac/legal/whwmdceo.pdf>>.

2005년 11월로 예정된 제 5차 6자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⁴³

미국은 북한 기업들의 금융활동에 대한 법적 조치가 행정명령 13382호와 애국자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핵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⁴⁴ 2005년 12월 7일, 미국 국무부 차관보인 로버트 조셉 (Robert Joseph) 은 미국이 북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한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해당 제재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⁴⁵

2006년, 미국-북한의 관계 개선과 6자 회담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2005년 12월 발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흑연감속 원자로 (graphite-moderated reactor) 프로그램을 재개함과 동시에 전력 생산을 위한 경수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자국 내에 경수로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중국에서 개최된 6자 회담에서 가장 큰 논쟁 거리 중 하나였다.

편집자 주: 한국의 정동영 (Chong Tong-yong)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Pan Ki-mun) 외교부 장관은 북한 기업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 문제가 미국-북한 간의 양자 간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6자 회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Asian and Oceanian Affairs) 켄이치로 사사에 (Kenichiro Sasae) 국장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우 다웨이 (Wu Dawei) 역시 미국-북한 간의 금융제재 문제와 6자 회담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⁴⁶

국제 소식

⁴³ "DPRK FM Spokesman Calls U.S. 'Sanctions' Pressure for DPRK to Abandon 'Nuclear Program First'," Korean Central News Agency, October 18, 2005; in FBIS Document KPP20051018971076; "N. Korea Insists on End to US Sanctions," AFX News, November 1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Lee Dong-min, "Sanctions Dispute No Excuse for NK to Skip Nuke Talks: Erel," Yonhap News Agency, December 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⁴ "N. Korea Insists on End to US Sanctions," AFX News, November 13,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Lee Dong-min, "Sanctions Dispute No Excuse for NK to Skip Nuke Talks: Erel," Yonhap News Agency, December 7,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⁵ William C. Mann, "U.S. Holds to Tough Financial Sanctions Despite North Korean Threats to Quit Nuclear Talks," Associated Press, December 14,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U.S. to Continue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 Korea," Jiji Press, December 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⁴⁶ Lee Joo-hee, "U.S. Envoy Says No End to Sanctions on N. Korea," Korea Herald, December 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Jaesoon Chang, "South Korea Calls for Direct U.S.-North Korea Talks to Resolve Non-nuclear Issues," Associated Press, December 5,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China and Japan Reject Sanctions Link to N Korea Talks," AFP, January 9,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005년 해상 항만보안

2005년은 방사능 물질과 장비, 혹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불법 이동을 방지하고 국제 해상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장된 한 해였다. 국제 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 후원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과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메가포트구상 (Megaport Initiative) 등을 받아들였다. 2005년의 이러한 경향은 해상 항만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 세관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와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과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입하면서 명백해졌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은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질을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게 불법 이전하려는 국가나 국제조직의 확산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5월 31일에 미국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현재 60여 개국이 공개적으로 PSI의 원칙성명 (PSI Statement of Principles) 을 수용하고 있다.⁴⁷ 지난해, 미국은 6월 1일에 크로아티아, 7월 25일 사이프러스, 8월 4일 벨리즈 등과 승선협정 (Ship Boarding Agreements) 을 체결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해상 차단훈련 - 8월 8-15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실시된 닌파 (Ninfa) 훈련; 8월 15-17일 싱가포르에서 실시된 딥 샤프브 (Deep Sabre) 훈련; 11월 14-18일 미국에서 실시된 익스플로링 테마스 (Exploring Themis) 훈련 - 을 포함하여 총 6차례의 PSI 훈련이 실시되었다.⁴⁸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PSI 훈련인 딥 샤프브 (Deep Sabre) 훈련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등이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에서 PSI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⁴⁹ 국제해사기구 (IMO) 가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 협약 (1998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of Violence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협약] (아래에서 검토됨))의 강화를 위한 개정을 단행함으로써 PSI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확고해졌다.

⁴⁷ "Argentina, Georgia, Iraq to Joi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ly 2005), pp. 6-7, <<http://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⁴⁸ For more information on PSI se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on the U.S. Department of State website, <<http://www.state.gov/np/c10390.htm>>.

⁴⁹ "Singapore Hosts 17th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Exercis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13-14,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미국이 주도한 두 번째 구상인 컨테이너 안보구상 (CSI) 은 2002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CSI에 따라, 세관국경보호국 (CBP) 직원들은 외국의 항구로 배속되어 해당 국가 담당자들과 함께 미국 향(向) 고위험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2005년에 CSI를 실시하는 항구가 9개 더 늘어 총 42개 항구에서, 전체 미국 항 컨테이너의 75% 이상에 대한 사전 검색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 말까지 CSI를 실시하는 항구는 중동,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2005년에 새로 추가된 CSI 항구와 실시일자는: 프랑스 마르세유 (1월 7일)⁵⁰; 아랍 에미레이트의 두바이 (3월 26일); 중국 상하이 (4월 28일)⁵¹; 중국 선전 (6월 24일)⁵²; 대만 카오슝 (7월 25일); 브라질 산토스 (9월 22일); 스리랑카 콜롬보 (9월 29일)⁵³;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11월 17일)⁵⁴; 포르투갈 리스본 (12월 14일) 등이다.⁵⁵ 오만의 술탄 (Sultanate) 과 온드라스 정부는 각각 살랄라 (Salalah) 항구⁵⁶ 와 코르테스 (Cortes) 항구⁵⁷에서 CSI를 이행한다는 원칙성명서를 비준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메가포트 구상 관련 기사 참조)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 2006년 말까지 CSI 실시 항구를 50개로 늘리고, 전체 미국 항 컨테이너의 약 90%를 검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가포트 구상 (Megaport Initiative)

메가포트 구상은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U.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의 이차방어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메가포트 구상은 CSI를 실시하는 항구에 방사능 탐지장비를 제공하고, 방사능 물질의 불법 선적을 식별하는 능력을 개선하도록 해당 항구 담당자들을 교육함으로써 CSI를 보완한다.

메가포트 구상은 2005년, 특히 2005년 말에 급격히 확장되었다. 국가핵안보국 (NNSA) 은 바하마(1월 3일)⁵⁸, 싱가포르 (3월 10일)⁵⁹, 우크라이나 (4월 22일), 필리핀 (7월 20일)⁶⁰, 오만 (11월 7일), 중국 (11월 19일), 이스라엘 (12월 7일), 온두라스 (12월 15일) 등과 협정을 체결했다.⁶¹ 반면, 2003년에는 그리스, 네덜란드, 스리랑카 등의 항구에 탐지장비를 제공하는 등의 협정을 맺고 2004년에는 벨기에, 스페인의 항구와 리투아니아의 공항에 대한 협정을 맺는 등 2003년과 2004년을 통틀어 겨우 6개의 협정을 체결했었다. 오만과 온두라스와의 협정 체결 건의 경우, CSI와 메가포트 구상 협정 체결에 대해 공동으로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세관국경보호국 (CBP) 와 국가핵안보국 (NNSA) 의 강화된 협력관계를 보여주었다.⁶²

2005년 전반기에 미국 정부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미국의 해상안보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 시리즈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통해 정부감사원 (GAO) 은 CSI 활동에 필요한 탐지장비가 기술적으로 낙후하고, 메가포트 구상 비준국을 넓히는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⁶³ 세관국경보호국 (CBP) 와 국가핵안보국 (NNSA) 은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가핵안보국 (NNSA) 은 지난 몇 달간 많은 국가들과 새로이 협정을 체결했고, 특히 두 건의 경우 세관국경보호국 (CBP) 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협정을 맺었다. CSI와 메가포트 구상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세관국경보호국 (CBP) 은 CSI 항구에 고위험 컨테이너 검색을 위한 효과적이고 방해가 되지 않는 검색 장비를 확실히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⁵⁰ "United States Intensifies Efforts to Prevent Illicit Shipments of Nuclear and Related Material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5), pp. 14-15,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⁵¹ "Chinese Port of Shanghai Joins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Argentina and Brazil to Follow Suit,"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May 2005), pp. 7-8 <<http://cns.mi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⁵²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ontinues to Expand to Include China and Portugal," NIS Export Control Observer, (July 2005), p. 8,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⁵³ "CSI Update.U.S., Canada Sign Partnership; Ports of Santos and Colombo Operational,"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November 2005), p. 14, <<http://cns.miiis.edu/pubs/observer/index.htm>>.

⁵⁴ Buenos Aires, Argentina, 41st Operational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Port to Target and Pre-Screen Cargo Destined for U.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Press Release, November 17, 2005, <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11172005.xml>.

⁵⁵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Adds Lisbon, Portugal as the 42nd Operational Port," CBP Press Release, December 14, 2005, <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12142005.xml>.

⁵⁶ "Oman to Participate in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to Screen Cargo Destined for U.S.," CBP Press Release, November 22, 2005, <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11222005.xml>.

⁵⁷ "Republic of Honduras, First in Central America to Participate in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to Screen Cargo Destined for U.S.," CBP Press Release, December 15, 2005, <http://www.cbp.gov/xp/cgov/newsroom/press_releases/12152005.xml>.

⁵⁸ "United States Intensifies Efforts to Prevent Illicit Shipments of Nuclear and Related Materials," NIS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 2005), pp. 14-15 <<http://cns.miiis.edu/pubs/nisexcon/index.htm>>.

⁵⁹ "Singapore Joins Megaports Initiative,"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March 2005), p. 10, <<http://cns.mi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⁶⁰ "Philippines Joins Megaports Initiativ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 15, <<http://cns.miiis.edu/pubs/observer/index.htm>>.

⁶¹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greements with each of these countries, see the respective press releases available on the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website, <<http://www.nnsa.doe.gov/newsreleases.htm#2005>>.

⁶² "U.S. and Oman to Cooperate on Detecting Illicit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NNSA Press Release, November 19, 2005, <http://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5/PR_2005-11International_19_NA-05-29.htm>; "U.S. and Honduras to Cooperate on Detecting Illicit Shipments of Nuclear Material," NNSA Press Release, December 15, 2005, <www.nnsa.doe.gov/docs/newsreleases/2005/PR_2005-12-15_NA-0534.htm>.

⁶³ See Richard Stana, "Homeland Security: Key Cargo Security Programs Can Be Improved,"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Report GAO-05-466T, May 26, 2005, <<http://www.gao.gov/new.items/d05404.pdf>>.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Preventing Nuclear Smuggling: DOE Has Made Limited Progress in Installing Radiation Detection Equipment at Highest Priority Foreign Seaports," Report GAO-05-375, March 2005, <<http://www.gao.gov/new.items/d05375.pdf>>.

국제기구들의 해상보안 지원

부시 행정부는 CSI와 PSI의 해상보안 원칙들이 국제기구들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5년에, 세계세관기구 (WCO) 와 국제해사기구 (IMO) 는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선제 행동 (pro-active) 방안을 도입했다.

세계세관기구 (WCO) 는 세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립적인 정부간 기구이다. 2005년 6월, 세계세관기구 (WCO) 회원국들은 미국 정부의 다양한 해상안보 프로그램을 국제화하기 위한 “국제 통상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표준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 을 만장일치로 도입했다. 이 표준은 최신 전자명세서의 조화, 불법 선적을 대상으로 한 위험관리의 도입, 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외국행 선적품의 검사 제공, 내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에 대한 관세상 특혜 제공 등을 포함한다. 새로운 표준의 마지막 두 가지 사항은 미국의 CSI와 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프로그램을 반영한 것이다. [편집자 주: C-TPAT 프로그램은 2001년 11월 27일, 세관국경보호국 (CBP) 이 도입한 것이다. C-TPAT 프로그램은 자사의 보안요령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고, 자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자들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업들에 대해, 세관 절차상의 우선권과 검사 축소 등의 혜택을 주는 자발적인 구상이다.] 테러리스트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운송을 위해 국제 선적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만연했던 2001년에 미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 공격이 발생한 후, 세계세관기구 (WCO) 는 이 표준의 보안 요소들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이 표준의 도입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관세 기구들과 정부, 기업 간에 굳건한 협력이 필수적이다.⁶⁴ 2005년 12월 현재, 세계세관기구 (WCO) 169개 회원 중 122개가 이 표준의 이행을 위한 동의서에서 명했다.⁶⁵

2005년 10월 14일, 국제해사기구 (IMO) 의 회원들은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 협약 (SUA 협약) 을 개정,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의정서를 체결했다. 국제해사기구 (IMO) 는 해상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규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UN 특별기구이다. 새로 도입되는 의정서들은 비무장선박 (nonmilitary ships) 을 이용한 무기운송이나 약식무기를 이용한 공격 등을 범죄로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에 공헌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 등의 운송을 불법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 협약 (SUA 협약) 의 위반협약이 있는 선박으로의 승선 절차를 규정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의 저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⁶⁶ 특히 일본은 이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⁶⁷ 이 의정서들은 2006년 2월 14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러시아의 감독 하에 핵 반응기 구축하는 미얀마

미얀마 망명자 (Burmese exiles) 단체는 미얀마가 국내에 핵 반응기를 구축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원자력에너지청 (Russian Federal Atomic Energy [Rosatom]) 과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⁶⁸ 러시아 정부는 2002년에 미얀마 정부와 미얀마에 핵연구센터 설립하기 위한 협력협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⁶⁹ 러시아 원자력에너지부가 기초하고 2002년 5월 15일자 정부명령 312호에 의해 승인된 해당 협정에 따르면, 미얀마의 핵연구센터에는 저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10 메가와트 수명장형 경수로와 핵의학 생산연구소 (Medical Isotope Production Laboratory), 실리콘 방사선 도핑시설 (installation for silicon irradiation doping), 방사능폐기물 처리, 저장 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⁷⁰ 2002년 당시, 실제 건립공사는 3-4년 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5년 10월 하순, 미얀마 망명자 단체가 관리하는 뉴스 서비스인 미지마 뉴스 (Mizzima News) 는 미얀마 정부가 러시아와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자금상의 문제로 2005년 초에 사업진행을 중단했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센터 설립을 감독하고 핵연료를 제공할 것이지만, 반응기를 직접 제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⁷¹

이 반응기는 만달레에서 동쪽으로 42마일 떨어진 만달레 행정주

⁶⁶) “Protocol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SUA),” U.S.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October 21, 2005, <<http://usinfo.state.gov/is/Archive/2005/Oct/28-980286.html>>.

⁶⁷) “Japan Supports Strengthening Maritime Safety Treaty as Means of Fighting Proliferation,”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February/March 2005), pp. 8-9,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⁶⁸) “Burma’s Nuclear Ambition a Controversy as Talks Resume with Russia’s Minatom,” BurmaNet News, October 26, 2005; in FBIS Document SEP20051027005002. “Talks on Burma Nuclear Facility Resume,” Mizzima News, September 30, 2005; in “Russia and Burma Talk on the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Burma Issues, October 5, 2005, <<http://www.burmaissues.org>>.

⁶⁹) “Postanovleniye Pravitelstva Rossiyskoy Federatsii ot 15 maya 2002 g. No. 312 ‘O zaklyuchenii Soglasheniya mezhdru Pravitelstvom Rossiyskoy Federatsii i Pravitelstvom Soyuzu Myanma o stroitelstve Tsentra yadernykh issledovaniy v Soyuze Myanma,’” Russian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website, <<http://www.minatom.ru/News/Main/view?id=10018&idChannel=124>>.

⁷⁰) “Soglasheniye mezhdru Pravitelstvom Rossiyskoy Federatsii i Pravitelstvom Soyuzu Myanma o sotrudnichestve v stroitelstve v Tsentra yadernykh issledovaniy v Soyuze Myanma,” Russian Federal Atomic Energy Agency website, <<http://www.minatom.ru/News/Main/viewPrintVersion?id=10022&idChannel=453>>.

⁷¹) “Talks on Burma Nuclear Facility Resume,” Mizzima News, September 30, 2005; in “Russia and Burma Talk on the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Burma Issues, October 5, 2005, <<http://www.burmaissues.org>>.

⁶⁴) For more details on the Framework, see “World Customs Organization Adopts Standards for Secure Trad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October 2005), pp. 12-13,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⁶⁵) Communication Service of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e-mail correspondence with the author, received December 12, 2005.

쨌우세 (Kyaukse) 의 핀우린 지역에 건립될 것으로 보인다.⁷² 이 지역은 종종 안개로 둘러싸여, 위성감시가 어렵다. 또한 이 지역은 2005년 11월 초에 미얀마의 새 수도가 된 핀마나 (Pyinmana) 와 매우 가깝다.⁷³ 해당 시설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가능성과 함께, 미얀마 정부가 이 시설을 안전하게 건립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는 핵확산금지조약 (NPT)의 비준국이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회원국이다. 2002년, IAEA는 해당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미얀마의 제도적 틀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⁷⁴ 당시 IAEA 부대변인이었던 멜리사 플레밍 (Melissa Fleming) 은 2002년 11월 미얀마 방사능 보호 개선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 미얀마의 제도적 장치가 표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⁷⁵

워크샵과 컨퍼런스

미국과 베트남, 수출통제에 대한 APEC 회담의 공동후원 말아

미국과 베트남은 2005년 11월 1-3일 사이에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회원국들의 수출통제 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요소” 라는 제목의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해당 컨퍼런스는 미국 국무부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EXB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최근 수출통제, 항구 보안, 거래 편리화 등의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APEC 16개국과 국제연합 (UN) 에서 온 71명의 참석자가 함께 하였다.

컨퍼런스의 핵심 논지는 효과적인 수출통제와 항구 보안 요령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싱가포르 관세청 소속 직원이 싱가포르 수출통제시스템을 소개하고, 미국 상무부 대표가 APEC 회원국을 위해 거래 안보의 구체적인 이점에 대해 발표하는 등 해당 논지를 뒷받침하는 여러 발표들이 있었다. 이에 더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최근 경향,

⁷² “Talks on Burma Nuclear Facility Resume,” Mizzima News, September 30, 2005; in “Russia and Burma Talk on the Nuclear Research Development,” Burma Issues, October 5, 2005, <<http://www.burmaissues.org>>. Jan McGirk, “Burma’s Rulers Take the Road to Mandalay,” Independent,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⁷³ Jan McGirk, “Burma’s Rulers Take the Road to Mandalay,” Independent, November 8, 2005;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⁷⁴ “Concerns over Burma’s Nuclear Plans,” BBC World Service, January 24, 2002, <<http://www.bbc.co.uk>>.

⁷⁵ “Burma’s Nuclear Ambition a Controversy as Talks Resume with Russia’s Minatom,” BurmaNet News, October 26, 2005; in FBIS Document SEP20051027005002.

휴대용 대공방어시스템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s [MANPADS])의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SCR 1540) 의 위상, 일본정부의 대(對) 산업계 대외활동 등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컨퍼런스 개막과 폐막이 본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동안, 대부분의 발표와 토론은 두 개의 작은 워크샵을 통해 이루어졌다. “법제도적 (Legal and Political)” 워크샵은 세계적 표준을 만들고 전세계적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조화에 집중하였다. 법제도 그룹의 참가자들은 APEC 회원국들 간에 공통의 수출통제시스템 기본틀이 부재하다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의 교육 프로그램과 물수 자급에 대한 정보의 교환 등 많은 협력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참가자들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성과를 확장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집행 (Enforcement)” 워크샵은 국가 간 거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략과 표적화 (targeting) 에 초점을 맞추었다. 법제도 그룹 참가자들에 이어, 참가자들은 특히 정보 공유와 교육과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집행 그룹 참가자들은 또한 정보수집이 효과적인 위험관리와 표적화 실행을 위한 불가결한 기본요소를 인식하였다.

컨퍼런스 진행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미국 국무부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 (EXBS) 프로그램의 공식 웹사이트 <<http://www.exportcontrol.org>>에 게재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컨퍼런스에 참가한 APEC 회원국들은 호주, 캐나다, 칠레, 대만,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등이다.

한국 산업자원부 (MOCIE), 국제 수출통제 워크샵 개최

2005년 12월 2일, 한국 산업자원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는 수출통제 표준과 한국 민간 부문에의 효과에 대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⁷⁶ 해당 워크샵은 한국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하였다.

워크샵에는 200여명의 주요 한국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효과적인 수출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적, 국내적 표준을 검토하였다. 이희범 (Lee Hee-beom) 산업자원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UN, EU 및 미국의 새로운 수출통제규범에 대한 첫 번째 세션이 있었다. 전(前) UN안전보장이사회 전문위원인 브라질의 로게 몬텔레오네-네토 (Roque Monteleone-Neto) 는 각 회원국들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과 기술의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구축하도록 요구하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SCR 1540)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⁷⁷ 이어서 벨기에 리그 (Liege) 대학의 키엔틴 미셸 (Quentin Michel) 교수와 미국 패턴 버그 (Patton Boggs) 법률회사의 다니엘 왈츠 (Daniel E. Waltz) 가 각각 유럽연합과 미국의 수출통제체제에 대해 발표했다.⁷⁸

두 번째 세션에서, 산업자원부 전략물자제도과 (MOCIE Export Control Policy Division) 의 심성근 과장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대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1540 (UNSCR 1540) 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대해 논하고, 컨테이너 안보구상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메가포트 구상 (Megaport Initiative), 캐치올 (Catch-All) 조항의 의미 그리고 일본의 수출통제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Kim & Lee Pacific Law Firm) 의 표인수 변호사는 한국전략물자통제시스템의 현안과 민간기업 관점에서의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⁷⁹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최승환 교수는 북한이 불법적인 용도로 통제물질에 접근하는데 잠재적인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북한 개성공업단지와 수출통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인 이석기 박사는 기업인증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⁸⁰

⁷⁶) “[Allim] kukjesuch’ult’onggyeub.m seminar” ([Notic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tandards Seminar), Maeil Ky.ngje Sinmun, (Economic Daily) December 2, 2005; in KINDS, <http://www.kinds.or.kr>.

⁷⁷) South Korea submitted its initial UNSCR 1540 report on October 27, 2004. For a copy of the report, see “National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N04/590/21/PDF/N0459021.pdf>.

⁷⁸) Quentin Michel, “The European Union Export Control Regime,” December 5, 2005, unpublished conference paper. Daniel E. Waltz, “U.S. Regulation of Re-Exports: The EAR’s De Minimis Rules; The Iran Non-Proliferation Act; Pilot Adoption of RFID,” December 5, 2005, unpublished powerpoint slides.

⁷⁹) Shim Soung-kun, “Ch.Ilrakmulchasuch’ult’ongje.i kukjedonghyanggwa tae.ng p’ilyos.ng” (International Trends in the Export Controls of Strategic Materials and the Need to Deal with Them), December 5, 2005, unpublished powerpoint slides. P’yo In-su, “Han’gug’i such’ult’ongjedowa ki.bi tae.ng” (Korea’s Export Control System and the Private Sector Response), December 5, 2005, unpublished powerpoint slides.

⁸⁰) Workshop agenda provided to author via e-mail correspondence with Shim Soung-kun, Director, Export Control Policy Division,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남부 카자흐스탄서 내부이행프로그램 (ICP) 워크숍 열려

2005년 11월 15-17일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심켄트 (Shymkent) 에서 열린 내부이행프로그램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관련 워크숍에 미국 국가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과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 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워크숍은 미 국무부 수출통제 및 관련 국경보안 지원 프로그램 (EXBS) 이 자금을 지원하여 개최된 카자흐스탄 내 네 번째 내부이행프로그램 (ICP) 워크숍이다. 워크숍에는 카자흐스탄 핵 관련기업 연맹 (Kazakhstan’s nuclear enterprise community) 대표들과 상공부, 세관통제위원회 (CCC), 원자력에너지위원회, 원자력에너지연구소, 핵기술안전센터 그리고 러시아 옵닌스크 (Obninsk) 의 물리전력공학연구소 (A.E. Leypunskiy Institute for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IPPE]) 등의 대표 등 대략 16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비확산의 국제적 전망; 카자흐스탄 수출통제시스템; 민감한 물자에 대한 카자흐스탄 세관의 통제; 그리고 기업의 통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 수출통제의 법적 방법론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워크숍 일정에는 토켄트 채광 및 화학생산연합 (Taukent Mining and Chemical Combine [TMCC]) 의 복합산화물 정제소 (mixed oxide refinery) 와 모인쿰 우라늄 시설 (Moinkum uranium fields) 내에 있는 산성 침출 우라늄재생시설 (in-situ acid leach uranium recovery facility) 의 시찰이 포함되었다. 시찰의 목적은 참가자들에게 산업내외적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토켄트 채광 및 화학생산연합 (TMCC) 은 그들의 채광 공정, 생산규모, 관할 부지 등의 안전과 보안 실태에 대해 자세히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토켄트 채광 및 화학생산연합(TMCC)은 우라늄 채광, 처리, 생산 등 다방면의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TMCC 의 복합산화물 정제소 (mixed oxide refinery) 와 산성 침출 우라늄재생시설 (in-situ acid leach uranium recovery facility) 은 서로 떨어진 두 지역에 위치해 있다. “침출 방법 (In-situ leaching)”과 “용해채광법 (solution mining)”은 지층에 용액 (이 경우에는 산성용액) 을 침투시켜 매장된 (혹은 여과된) 광석을 정제하는 방법이다. 침출 방법은 지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암석 폐기물을 만들지 않아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정이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t is published 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6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Sonia Ben Ouagrham

Associate Editors-in-Chief
Dauren Aben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Daniel Pinkston
Leonard S. Spector

Co-Editor
Alexander Melikishvili

Associate Editors
Andrew Diamond
Tanat Kozhmanov
Jing-dong Yuan

Contributors
Dauren Aben
Randall Beisecker
Cristina Chuen
Andrew Diamond
Dave H. Kim
Tanat Kozhmanov
Stephanie Lieggi
Alexander Melikishvili
Debika Pal
Dan Pinkston
Sean Reid
Masako Toki
Erik Quam

Reviewers
Richard Cupitt
Charles Ferguson
Dennis Gormley
Elina Kirichenko
Mitsuru Kurosawa
Scott Parrish
Evan Medeiros
Phillip Saunders
Nicolai Sokov
Carlton Thorne
Jonathan Tucker
Lars Van Dassen
Kathleen Walsh

Copy Editors
Maria Haug
Katya Shutova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111 Nineteen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78-3446; Fax: (202) 238-9603
email: intexcon@miis.edu